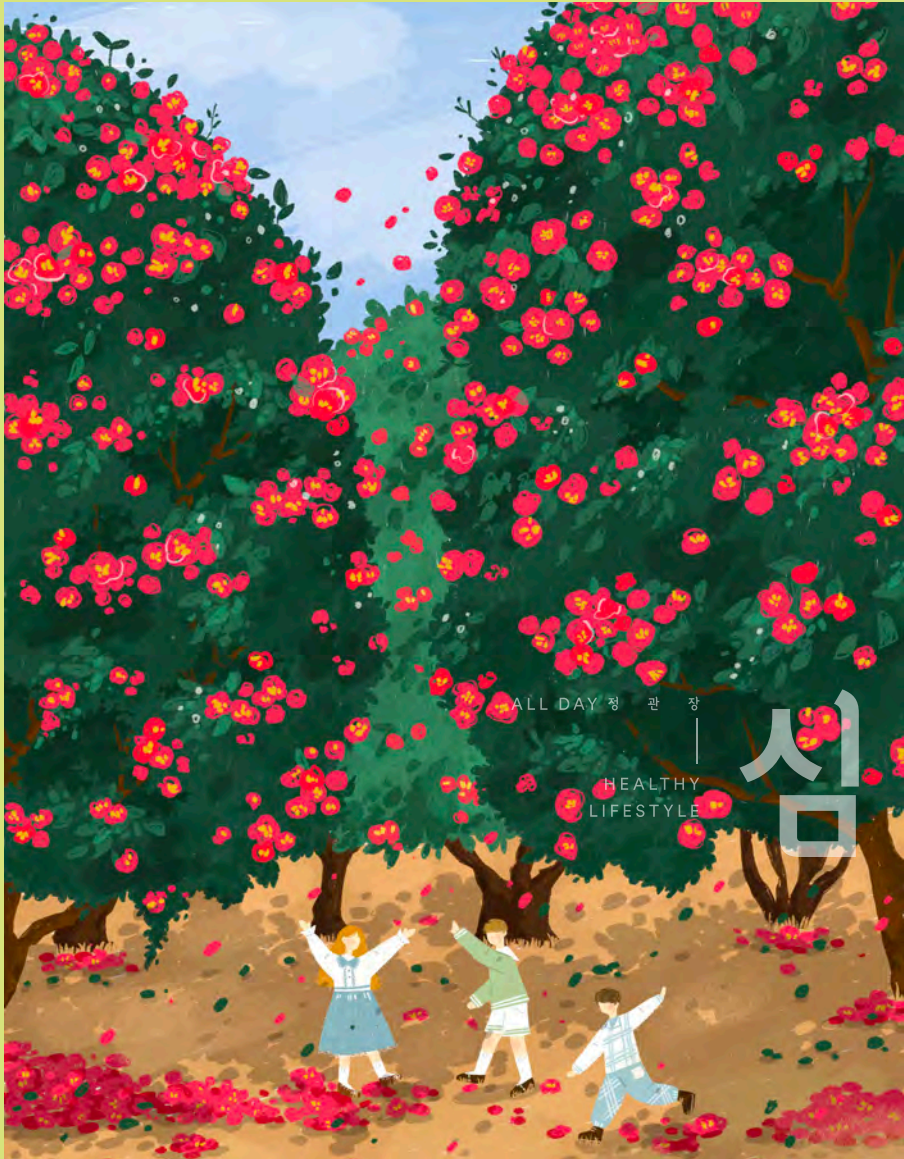


심





CONTENTS

계절과 함께

- 12 사계절 건강법
에너지 좋은 날
- 16 지붕 아래
GREEN LIFE
- 22 피부의 빛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게, 성우 이용신
- 26 ADVICE
봄이 오면 내 피부에
- 28 가볍게 홈트
무너진 자세 바로잡기
- 30 좋은 날, 맛있는 음식
VERY BERRY SPRING
- 36 이 계절에 만난 사람과 공간
흠에서 자유로우리, 도예가 신상호

사이좋은 사이 '브라더&시스터'

- 46 관계처방전
둘이라서 좋아
- 50 숫자로 읽기
나의 호적메이트
- 52 함께, 행복하게
우리 남매
- 58 한장의 추억
기억하니
- 62 즐겨찾기
DAY FOR TWO





정관장과 함께

- 66 삼을 삶으로**
일본법인 영업팀 정한결 팀장,
OTC영업팀 무라노 팀장
- 70 인연을 그리다**
서유림 정관장 가맹점사업자(내서점)
& 성점순 고객
- 74 인삼 인문학**
영국 왕립학회와 인삼
- 78 투어리스트**
붓산에 가면
- 82 지니펫과 함께**
새봄, 새 마음으로 돌보기
- 86 #을 달아주세요**
고객과 독자의 SNS 인증샷 모음

- 88 KGC 뉴스**
홍삼 세계 지도 공개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 모델 발탁
동인비 듀얼 안티에이징
호 배달 캠페인 성료
- 90 요즘 이야기**
집에 로봇 있어요?
- 91 모아보기**
KGC인삼공사와
매거진 <심>의 각종 소식

심

2022년 봄호(통권 109호)

발행인 김재수 편집인 김호겸
 발행처 KGC인삼공사 대외협력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KT&G 타워 15층, TEL. 1588-2304
 www.kgc.co.kr
 제작 (주)네오메디아 TEL.02-512-1666
 편집장 박윤선
 에디터 권상진 아트디렉터 이현미
 사진 Studio DAY40 교열 박영혜
 인쇄 벽호 TEL.031-946-0981

※ 본 매체에 기고된 원고 내용의 일부는
 KGC인삼공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관장의 시간



지금, 여기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홍삼의 헤리티지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홍삼의 가치를



심



오감으로 경험하며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KGC인삼공사가 1899년부터 지켜온 홍삼의 헤리티지와
진귀한 가치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SPA 1899.
세 가지 시그니처 원료에 응축된 에너지는 몸과 마음을 일깨우며,
정성 어린 리추얼과 테라피가 지친 일상 속 진정한 휴식을 전합니다.
내면의 건강함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끌어올리는 시간,
홍삼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건강한 일상 속으로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정관장이 한 걸음 더 가까이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구성 편집부 사진 KGC인삼공사

심



홍삼의 영양 성분인 사포닌SAPONIN,
음식 영양 등을 담아 전하는 스푼SPOON. 정관장 사푼사푼 카페의 이름은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홍삼의 새로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자연에서 온 제철 재료, 땅의 에너지, 홍삼의 그윽한 풍미,
최상급 프리미엄 테이스트를 즐기며
일과 휴식, 대화가 있는 삶의 여유를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에너지 좋은 날



따사로운 햇살, 포근한 바람 속에 하염없이 나른해진다.
때로는 그 몽롱한 기분을 즐기기도 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 B 꼭 섭취할 것



체내 에너지 대사 활성화에 관여하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몸이 쉽게 지칠 수 있다. 비타민 B는 기초 체력을 형성하고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을 없애며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등 피로 해소에 탁월하다. 대부분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가급적 건조 효모와 같은 자연물을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자. 자연물에 있던 생리 활성 물질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질은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 제품에 '건조 효모(비타민 B₁, B₂)' 등과 같이 유래 물질과 영양소명이 함께 적혀 있으면 자연 유래 비타민이다.

비타민 D도 놓치지 말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우울해진다. 땀이 과도하게 나고 무기력증과 소화장애가 생기는 것도 비타민 D 결핍 증상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햇볕을 자주 쬐면 좋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어, 참치, 달걀, 소고기 등을 활용한 식단으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다.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은 10~15 μ g. 하루에 100 μ g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랜 기간 과용하면 뼈가 약해지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고칼슘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압으로 정신 깨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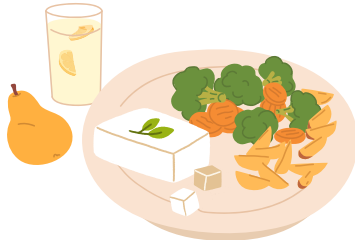
우리 몸 곳곳에는 피로, 집중력, 수면과 관련된 혈자리가 있다. 생각날 때마다 이 부분을 지압해주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눈이 뻑뻑할 때는 눈과 코 사이에 움푹 들어간 정명혈을, 졸음이 쏟아질 때는 뒤통수 아래 풍지혈을, 만성피로에 시달릴 때는 손바닥 끝에서 팔꿈치 쪽으로 5~6cm 밑에 있는 내관혈을 꼭꼭 눌러보자. 손가락 지압도 효과가 좋다. 손톱이나 도구를 이용해 손가락 끝을 10~20회, 10~20분 정도 자극하면 기운이 회복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커피, 이롭거나 해롭거나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면 '커피냅coffee nap'을 추천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15~20분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에 잠을 방해하지 않을까 싶지만, 각성 효과가 약 20분 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사이 자고 일어나면 더욱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 러프버러대학, 미국 라이트주립대학 등 여러 연구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방법이다. 다만 비타민이나 철분 등의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영양제를 복용했다면 최소 2시간이 지난 후 커피를 마시도록 하자.

식생활을 지혜롭게



단백질은 졸음을 쫓고 당분은 졸음을 부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낮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육류 위주로, 밤에는 당질이 많은 곡물이나 과일 중심으로 식사하면 생활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하루 한 끼 정도는 항염증 식사도 해볼 만하다. 체내 염증이 피로의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로만 구성된 항염증 식단을 섭취해보자. 이때 단백질은 두부, 낫토 등 육류가 아닌 것으로 골라야 한다.

꿀잠을 부르는 종이책



피로를 해소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책만 펼치면 잠이 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영국 서섹스대학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은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심장 박동 수가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에 알맞은 신체 조건이 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수치도 책을 읽은 후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장르의 책이든 상관 없지만, 전자책은 예외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오히려 잠을 방해한다.

봄나물로 춘곤증 극복!



한의학에서는 봄나물의 약한 쓴맛이 허열虛熱을 내리고, 나른한 기운을 다스리며, 입맛을 돋운다고 여긴다. 이런 효능이 있는 봄나물로는 냉이, 달래, 씬바귀 등이 있다. 봄나물에는 피로해소에 탁월한 비타민 C도 풍부하다. 100g 기준으로 냉이에는 74mg, 달래와 쑥에는 33mg, 두릅에는 15mg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봄나물만 잘 챙겨 먹어도 비타민 C 하루 섭취 권장량(100mg)을 충족할 수 있다. 봄나물로 만든 반찬을 봄철 밥상에 올리자. 냉이는 새콤달콤하게 무치고, 달래는 양념장을 만들고, 두릅은 살짝 데쳐 먹으면 좋다.



하루의 규칙을 정하라

만성피로를 극복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늦잠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몸은 일관성을 가장 좋아하는데 일정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수면 주기가 깨지면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하는 노력도 큰 도움이 된다. 조깅,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을 권장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근육을 풀어주자.

Green Life

반려식물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플랜테리어 가이드.



페인팅 화분으로 재미 더하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홈 가드닝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플랜테리어에서 화분은 감각과 개성을 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의 높이와
모양, 색과 잘 어울리는 화분을 고르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보자.



투명한 초록 세상, 테라리엄

유리그릇을 활용하는 테라리엄은 별이 잘 들지 않는 실내에서도 예쁘고 싱싱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 또 흙이 새지 않아 식탁 위에 놓아두어도 괜찮다.
투명한 유리그릇 안에 아기자기한 미니 정원을 꾸미는 재미도 쏠쏠하다.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작은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

폭이 좁은 선반을 미니 정원처럼 꾸밀 수도 있다. 아이비나 클레코마처럼 길게 늘어지는 넝쿨 식물을 작은 화분에 심어 가지런히 배치한다. 벽을 따라 내려오는 초록 줄기가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1초 만에 자연 속으로

누구나 멋진 실내 정원을 꿈꾸지만 여러 화초를 돌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살아 있는 식물이 아니더라도 멋진 포스터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기정화 식물로 인기 높은 아랄리아 옆에 보태니컬 포스터를 배치하면 싱그러운 분위기가 더욱 살아난다. 미니멀한 인테리어에도 적합하다.

실내를 촉촉하게, 에어플랜트

에어플랜트는 공간을 서정적으로 만든다. 성장이 느리지만 흠이 필요 없고
가꾸기 쉬워 식물 초보 집사에게 적합하다. 주기적으로
물을 분무해주고, 메마른 것 같다면 식물 전체를 물에 살짝 담가놓는다.





우리 집 선인장 정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은 병충해에 강하고 물 주기도 까다롭지 않다.
개성 넘치는 생김새만큼 종류도 다양해 보는 재미가 크다.
여러 모양의 선인장을 가지런히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국적인 분위기가 된다.

LISTEN HERE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게

성우 이용신

“여러 우물을 팠어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거든요.” 순수한 열두 살 소녀와 요염한 마법사 사이를 단순하게 오가는 성우 이용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또렷하고 단단하다. Z세대의 추억 속 애니메이션 <달빛천사>의 10대 소녀 루나와 풀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매력적인 구미호 마법사 아리. 정반대의 두 캐릭터를 잇는 유일한 끈, 바로 그녀의 목소리다.

“초등학생 때부터 카세트테이프에 목소리를 녹음해 듣는 게 놀이였어요.” 신문방송학과를 택한 건 당연했고, 강변가요제 인기상과 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 대상은 큰 행운이었다. 광고 음악 가수로 경력을 쌓고, 국군방송 MC와 홈쇼핑 방송에도 발을 들였으니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그녀다. 허투루 판 우물은 없었다. 성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연기하는 성우에게 그동안 파온 여러 우물은 영감의 원천으로 차올랐기 때문이다.

좋은 목소리와 명확한 발음, 자연스러운 연기에 노래까지 되는 성우 이용신. 어린이 전문 채널 투니버스에 공채로 들어가 성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다. 가수를 꿈꾸는 열두 살 루나와 가수로 변신한

열여섯 살 풀문을 1인 2역으로 소화하는 <달빛천사>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것이다. “2년 차 신인이 대작의 주인공을 맡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제 노래 관련 경력이 결정적이었죠.” 풀문에 완벽히 동화돼 무대 위에서 노래를 즐기는 순간, 이용신의 꿈도 함께 이뤄진 듯 짜릿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어느 날, 이화여자대학교 축제 운영팀에서 연락이 왔다. 놀랍게도 섭외 전화였다. “당연히 ‘왜요?’라고 되물었어요. 성우가 대학 축제 무대에 오르는 게 흔치 않으니까요. 알고 보니 내부 섭외 투표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추억 속 <달빛천사> 노래를 다시 듣고 싶다고요.” 2019년 5월,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애들아 안녕? 나 루나야, 잘 있었니?’ 옛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등장하자 엄청난 환호와 함께 곳곳에 눈시울을 붉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이용신 성우 자신도 가늠하지 못한 목소리의 힘이었다.

“당시 현장 직캠이 화제가 됐어요. 그 이후 <달빛천사> 음원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가 직접 편당해 음원을 내고 콘서트까지 열었어요. 저와 팬들 모두 평평 울었죠. 우어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우 이용신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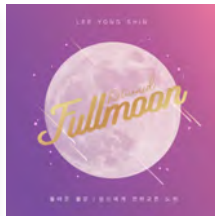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자생 에너지와 RG진세노바이옴™ 기술이 더해져
촉촉하고 견고한 탄성피부를 선사하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에센스
자생 원액에센스. 60ml, 12만원.



- 1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너에게 목소리를 보낼게>.
- 2 <달빛천사>를 추억하는 팬들을 위해 삽입곡들을 리메이크한 앨범.
- 3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챙기는 휴대용 가습기. 4 목이 건조할 때 식물성 성분의 목캔디를 섭취한다.



이용신의 <달빛천사> 무대
www.youtube.com



곡절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게 바로 저예요.”

성우의 첫 단독 콘서트, 첫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클래스 론칭, 프로 성우들의 보이스 플랫폼 오픈 등 그녀의 ‘첫’ 타이틀이 하나씩 늘어갔다. 팟캐스트에 유튜브까지 호기심이 생기면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하는 이용신의 ‘본캐’이다.

목소리는 몸의 기운

만화 속 인물을 연기하는 성우들은 동심 속에 산다. 하지만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성대를 쥐어짜는 발성을 계속하다 보면 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녀도 7년 차에 통과 의례처럼 성대결절이 찾아왔다. “불안했지만 극복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법을 찾게 됐어요.” 목소리가 단순히 성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목 관리가 아닌 몸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건 기본이며,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매일 러닝머신에서 5km를 달린다. 발성에 중요한 뱃심을 기르기 위해 복근 운동도 빼놓지 않는다. “목소리는 결국 사람의 기운과 통하거든요. 몸이 차가운 편인데, 기력이 떨어질 때 긴급 처방을 하듯 정관장 에브리타임과 홍삼정을 먹어요. 목소리에 확실히 힘이 생기더라고요.”

피부 건강은 건조한 환경에 버틸 수 있도록 보습을 최우선으로 챙긴다. “기능성이 확인된 제품을 선택해서 충분히 바르는 편이에요. 미스트를 자주 뿌리고, 환절기에는 매일 마스크팩을 하죠. 경락 마사지도 받고요.”

매번 부딪히며 배우고, 좌절한 후 다시 일어서는 좌충우돌 인생을 책 <너에게 목소리를 보낼게>로 펴낸 이유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재능을 고민하고, 여러 갈림길에서 방향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어릴 적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의 목소리에 우리는 왜 울컥할까. 무엇이든 마음껏 꿈꾸며 TV에 빠져들던 순수함이 그림기 때문은 아닐까. 이용신 성우는 그 순수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꿈을 꾸다. “만화나 게임을 좋아하는 ‘어른이’들을 위한 축제를 기획해보려고 해요. 애니메이션 송을 떴창하고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애니송 페스티벌’이죠.”

성우 이용신은 그 어떤 캐릭터보다 용감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목소리, 그것이 이용신만의 목소리다.

ALL DAY 정 반 장

HEALTHY
LIFESTYLE

심



원인도 해결책도 사람마다 다른 아토피지만
봄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까닭은 황사와
꽃가루, 건조한 환경 때문이다. 파고 파도 늘 궁금한 것들.

봄이 오면 내 피부에



어렸을 때는 없던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은 보통 유전학적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환경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과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질환 보유자의 약 50%가 만 2세 이전, 나머지 대부분의 보유자도 만 5세 이전에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유전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아는 100명 중 15~20명, 성인은 2~15명 정도의 확률로 아토피를 앓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면역력 저하, 공기 중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주원인입니다. 성인 아토피피부염은 주로 얼굴과 목에 증상이 나타나고 소아에 비해 중증도가 높습니다.

봄철에 더욱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햇빛 알레르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앞서 말한 공기 중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세 먼지와 황사, 꽃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봄이 되면 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꼭 봄이 아니라도 사람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은 여름, 가을 꽃가루 알레르기라면 가을, 건조한 환경에 민감한 사람은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거나 약이나 화장품을 남용하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검사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도록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아토피피부염과 증상이 유사하지만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만 발진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수일 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성 광선 피부염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내성이나 부작용이 걱정인데요,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까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효과가 좋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처방을 통해 바르는 부위에 적합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얼굴, 겨드랑이 등 피부가 접히는 부분의 표피가 얇고 습윤한 부위는 낮은 강도의 연고를,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약제가 침투하기 힘들고 닦이기 쉬운 부위는 높은 강도의 연고를 바릅니다. 또 같은 부위에 2주 이상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은 아토피 치료와 예방,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증상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요. 전문의들은 가급적 부작용이 적으면서 최적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테로이드 연고를 대체하는 약물이 여럿 개발돼 체질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홍삼 추출물이 보습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 장벽을 개선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피부세포 손상을 막으면서 염증과 가려움증을 가라앉히고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 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임상 실험을 통한 상용화를 기대합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손상된 피부 장벽에 자극이 가해지면 생기는 면역 반응입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세안이나 목욕 시 과도한 각질 제거를 피하고 약산성 비누나 물로만 씻어주세요. 충분한 보습은 필수입니다.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December 2014, Volume 6, Issue 4, pp 251~255



이혜영 성애병원 피부과 전문의
가천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길병원 전공의,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애병원 피부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아토피피부염연구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너진 자세 ————— 바로잡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헬스케어 앱
정관장 케어나우와 함께
굽은 어깨, 틀어진 척추, 흰 다리 등
볼품없는 자세를 교정해보세요!



1 굽은 어깨를 교정하는 동작

STEP 1

허리를 곧게 펴고 서서
양팔을 어깨높이에 맞춰
W자로 벌린다.

STEP 2

어깨와 팔을 뒤로 젖혀 날개뼈를
접는 동작을 5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풀어준다. 이를 10회 반복한다.



정관장 케어나우 5분 PT 영상 보러가기

차별화된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헬스케어 앱
정관장 케어나우와 함께 운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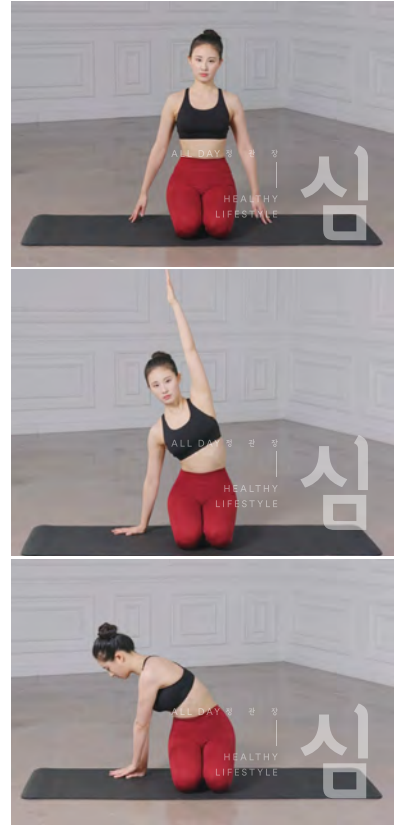
2 흰 다리를 교정하는 동작

STEP 1

뒤꿈치를 붙이고 양발의
방향을 대각선으로 튼다.
이때 양손은 허리에 둔다.

STEP 2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다리를 벌렸다
다시 오므린다. 다리와 팔약근에
힘을 주며 1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3 허리를 비틀어 척추를 교정하는 동작

STEP 1

무릎을 꿇고 똑바로 앉아 손가락 끝을
바닥에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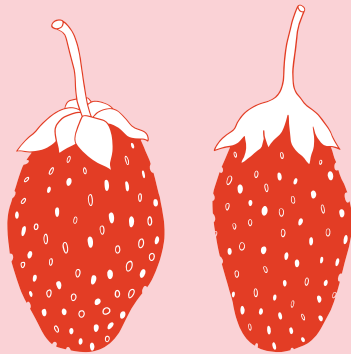
STEP 2

한쪽 팔을 위로 쪽 뻗고, 반대편 손은
바닥을 짚는다.

STEP 3

뻗은 팔을 반대편 손 위로 천천히 내리며
포갠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다 반대
방향도 같은 동작을 취한다.

VERY BERRY SPRING



봄 딸기의
싱그럽고 달콤한 향기가 가득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품종의 딸기가 여러 가격대로 나와 있어요. 꼭지 색이 진하고 과육이 꼭지 부분까지 붉은색이 돌아야 잘 익은 딸기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당 함유량이 높는데요, 과일이 맛있으려면 무조건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맛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국내 딸기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설향**은 과육이 부드럽고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좋아요. **매향**은 단맛이 높은 편인데 과육이 단단해 잘 상하지 않아 수출을 많이 하죠. **금실**은 설향과 매향을 교배한 품종으로 설향보다 딸기 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아요. **죽향**이 인기가 많은데 매향과 레드펠(육보) 품종을 교배해 향이 짙으며 당도가 높고 과육이 탄탄해 저장성이 뛰어나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연분홍색 **만년설**은 장희 딸기에서 우연히 얻은 돌연변이 품종인데 신맛이 거의 없고 단맛이 주를 이뤄요. 대왕딸기로 불리는 **킹스베리**는 신맛이 적고 복숭아 향이 나는 매력적인 품종이고요.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딸기 피타 샌드위치

PITA SANDWICH

여러 가지 신선한 재료를 넣은 샌드위치로 비타민 C 풍부한 건강 한 끼를.
피타 브레드 가득 루콜라를 채워 톡 쏘는 풍미를 맛보자.
드레싱에 **굿베이스 땅의 기운담은 비트콜라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더한다.
80ml×30포 5만4천원.



영상으로 보는 1분 레시피
www.youtube.com



TIP

어떻게 씻나요?

요즘 나오는 딸기는 병충해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볍게 물로 먼지 정도만 씻어내도 충분해요. 그래도 좀 더 깨끗하게 씻어서 먹고 싶다면 식초나 소금을 물에 타담근 뒤 살짝 흔든 다음 물로 헹궈주세요. 30초 이상 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 C가 녹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재료 준비 4개 분량

딸기 10개, 피타 브레드 2개, 루콜라 40g, 페타치즈 40g **드레싱 굿베이스 땅의 기운담은 비트콜라비** 1/2포, 레몬즙 3큰술, 올리브유 1큰술, 소금·후추 적당량씩

이렇게 만들어요

- 1 딸기의 꼭지를 제거한 다음 작은 것은 반으로 썰고, 큰 것은 4등분한다.
- 2 **굿베이스 땅의 기운담은 비트콜라비**와 나머지 드레싱 재료를 볼에 넣고 고루 섞는다.
- 3 팬을 예열해 물기 없이 바삭 말리고 피타 브레드를 노릇하게 구워 반으로 자른다.
- 4 딸기와 루콜라를 볼에 넣고 페타치즈도 손으로 잘게 부숴 넣는다.
- 5 4에 비트콜라비 드레싱을 넣고 고루 섞는다.
- 6 피타 브레드 속에 딸기 샐러드를 채워 완성한다.

발사믹 딸기 펀치

BALSAMIC PUNCH

새콤달콤한 딸기로 음료를 만들면 맛과 향이 더욱 풍부해진다.
굿베이스 홍삼담은 블루베리와 사이다를 섞어 청량감을 즐겨보자.
발사믹 식초와 흑설탕에 절인 딸기까지 더하면
아주 특별한 홈 카페 메뉴가 된다. **50ml×30포 5만9천원.**

재료 준비 2잔 분량

딸기 8개, **굿베이스 홍삼담은 블루베리** 2포, 레몬 1/2개, 발사믹 식초 1/2큰술,
흑설탕 2/3큰술, 사이다 2컵, 민트·얼음 적당량씩

이렇게 만들어요

- 1 딸기의 꼭지를 제거한 다음 작은 것은 반으로 썰고, 큰 것은 4등분한다.
- 2 레몬은 웨지 형태로 썰거나 슬라이스한다.
- 3 딸기와 발사믹 식초, 흑설탕을 볼에 넣고 고루 섞는다.
- 4 즈미 배어나올 때까지 30분 동안 상온에서 채워둔다.
- 5 컵에 **굿베이스 홍삼담은 블루베리**와 함께 담고 레몬, 민트, 사이다와 얼음을 차레대로 넣어 완성한다.



TIP

어떻게 보관하나요?

딸기는 습도에 약한 과일이라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먹을 만큼만 씻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딸기끼리 붙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담아 뚜껑을 덮고 냉장 보관하면 2~3일 정도는 과육이 물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최대 일주일 이상 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과육이 단단하고 포장 케이스의 위아래 통풍구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도 되지만, 스티로폼 등과 밀착되면 바로 물러지므로 바구니 등으로 옮겨주세요. 물러지기 시작했다면 꼭지를 떼고 밀폐 용기에 담고 설탕을 뿌려 냉장 보관하며 우유, 요거트 등에 섞어 먹습니다. 완전히 무른 딸기는 우유와 함께 셰이크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요.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제조원:코스맥스바이오(주) 유통전문판매원:주|한국인삼공사

이 계절에 만난 사람과 공간



진행 권성진 글 강현숙 사진 한수정

일흔여섯 도예가는 평생 휴과 불 사이를 오가며 깨달았다. 새롭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모험을 떠난다. 일상의 호기심을 상상력으로 버무리며, 양주 부곡 리에 터를 잡은 신상호 작가의 공방은 날마다 새로운 꿈을 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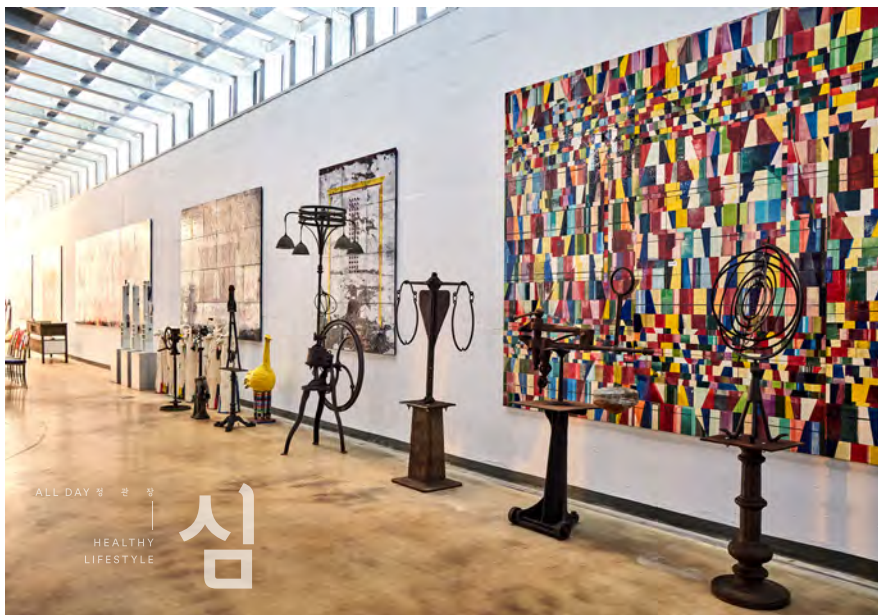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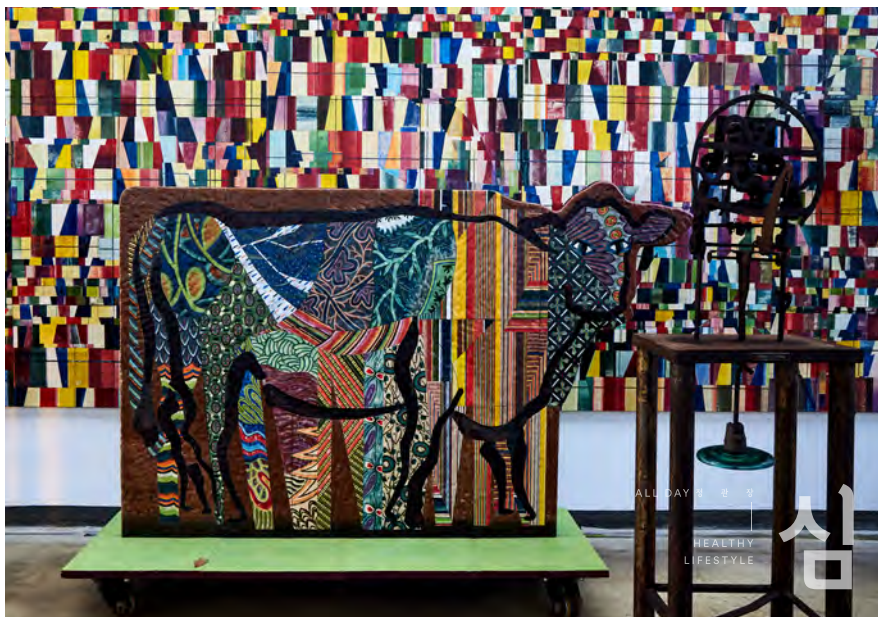
휴에서 자유로우리

도예가 신상호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전시실을 가득 메운 신상호 작가의
대표 작품들. 단편적 색채들로
구성된 <구운 그림 Fired Painting>
작품이 인상적이다.



그의 전시실은 주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오픈 스튜디오'다.
추후 누구나 와서 감상할 수 있도록
양주시에 기증할 계획이다.

조선시대에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양주 장흥면 부곡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도예가에게는 운명적인 공간이네요.

부곡리가 가마 ‘부瓮’에, 계곡 ‘곡谷’을 쓰거든요. 조선 말까지 가마터가 많아 도자기를 구워 서울로 가져다 팔던 곳이에요. 1976년 3월, 이름에 끌려 자리 잡은 지 벌써 46년이네요. 처음에는 소 축사만 있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공간을 지어 넓혀온 것이 어느덧 1만3,223㎡(4,000평)에 이르는 터에 작업실, 전시실, 살림 공간 등을 갖추게 됐습니다.

계곡의 흔적을 일러주듯 야트막한 경사를 따라 여러 채의 건물이 이어집니다. 나무가 쌓인 목공소, 쇠를 다루는 대장간 등 작업의 스펙트럼을 가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흙의 매력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는데 또 맘대로 안 되는 게 흙이예요. 정말 어렵고 까다롭죠. 50년 이상 흙을 만졌는데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재료의 장단점, 자연스러운 어울림... 여기서 쇠가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이걸 나무와 어울리면 어떨까? 그렇게 흙의 쓰임을 확장하는 재미에 작업 방식도 다양해졌어요.

생활 도자에서부터 평면, 조형, 건축 등으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데요.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Head 시리즈, 민화 시리즈, 창문을 작업과 동물 초상 등이 한 작가의 작품이 라기에는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늘 남들과 다르고 싶다, 새롭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작가의 가장 나쁜 적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새롭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죠. 자기 복제를 하는 작가가 많은데 다행히 저는 인내심이 없어요. 내 주변 세계가 어떤가를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왔죠. 머뭇거리지 않고 표현해왔어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감지하는 게 곧 시대정신이 아닐까요? 제가 남들과 크게 다른 건 ‘바로 실행한다는 점’이죠.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의 원인을 찾아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전위적’, ‘모험가’, ‘선구적’이라는 수식어 늘 따라붙는 이유네요. 과감한 변신 속에서도 올곧게 지켜온 도예가로서의 신념이 있을까요?

신상호 작가의 넓은 공방에는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그의 작품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오른쪽). 수십 년간 모은 각종 수집품까지 더해져 마치 박물관 같다. 최근에는 흙으로 그리는 그림 ‘나무’ 시리즈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초창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많은 작품을 흘뜨리지 않고 모아둘 수 있었어요. 작품의 시작과 끝, 작가의 오랜 숨결을 일관된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 작품과 미술관을 양주시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할 때 정리를 해야 편안하게 놓고 떠날 수 있지 않겠어요? 1995년도 즈음 아프리카 미술에 빠져 스무 번 넘게 남아프리카, 콩고, 케냐 등지로 떠나곤 했어요. 그때 야생의 동물들을 지켜보니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포식자와 피식자가 평원에 함께 있어요. 그 남기지 않는 삶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작품에 몰두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느낀 보람과 즐거움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이곳에서 묵으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로움. 흠은 고갈되지 않는 매력의 자원입니다. 작가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요. 흠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흠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도예에 과학이 접목된 지금 시대에는 색을 쓰는 것이나 크기 등 거의 모든 제약이 사라졌어요. 공예라는 틀에서 순수미술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죠. 건축 타일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기존의 탈착이 어려운 단점을 개선해 쉽게 붙이고 떼는 타일을 개발해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 외벽에 적용했습니다. 여태껏 전혀 손상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과 쓰임에 있어 한없이 자유로울 것, 그게 도예가 신상호의 신념이에요.

현재 몰두하고 계신 '나무' 시리즈는 흠으로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체감이 살아 꿈틀거리는 패턴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처음 공방을 조성할 때 느티나무를 심었거든요. 2017년, 그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다 문득 위를 올려다봤는데 훌쩍 자란 나무 가지와 이파리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그동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겠구나, 남은 생은 너를 그리면서 살아야 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죠.

이 공간에 46년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작가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마무리를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주 일찍 자요. 저녁 6시에 잠들었다 밤 12시나 1시에 일어나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만남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고평함을 즐기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공을 들여요. 아침으로 샐러드와 감자, 마, 낫토로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도 오랜 습관이고요. 정관장 홍삼 제품은 심심치 않게 먹고 있어요. 다양하게 선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지금껏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고 바람입니다.



신상호 작가의 작품 감상하기
www.youtube.com

20여 년 전, 아프리카 미술에 빠져 스무 번 넘게 아프리카로 떠난 신상호 작가. 당시 초원을 자유롭게 누비는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며 느낀 점들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해냈다.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Earth Makes Me Free Shin Sang-ho, Potter



Being 76 years of age, he as a potter has lived between earth and fire in his entire life with realization from them. Things that are not new cannot be an art. That is why he gets into adventures at every possible moment.

He said that after fashioning earth for more than 5 decades, finally he realized what earth was. "One of earth's attractions is that it is so approachable. Anyone can play with it, but you may easily find that it is hard to handle it as you want. It is very complicated and fastidious. Owing to such interesting factors that expand the boundary of earth use, the ways of working with earth also have become varied."

Traveling beyond boundaries from ceramic ware for kitchen or living space to flat space, formative art, architecture, etc., he is always full of ambitions to be different from others and to be brand-new. He believes that arts should be new at all times without being bound to fixed ideas. With his works, he expresses what he senses and feels about the ever-changing world. Even though it might not be always successful, he does not care much about such fails. This is why he is introduced with such modifiers as 'anti-form', 'pioneering', and 'adventurous.'

One of his beliefs as a potter that he has insisted in such drastic transformations is to be free. "Works that you can create with earth are endless. Now that pottery is combined with science, there is almost no restriction on coloring, size, etc. We have this road from the framework of crafts to fine arts. Architectural tiling is another area of new challenges. He devel-

oped tiles that are easily detached in order to make up for the existing disadvantage and applied them to the outer wall of Clayarch Gimhae Museum. As such, being totally free when it comes to expression and use is a basic principle of Potter Shin, Sang-ho.

His traces are all reflected here and there in his studio. Since he has stayed in the same pl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a lot of works created from his early stage to his old age are at this same place. You can meet the beginning and end of his works and his long respiration with one consistent story telling. In the future, works and exhibit halls will be donated to Yangju-si.

He wishes that this place does not remain in the past but moves forwards to the future. Having worked as an artist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and achieved many things, Sang-ho Shin would like to be just this way. "I have done everything that I wanted to do. Living that way during the rest of life is my happiness and hope."

Artist Pick

천녹5는 귀한 뉴질랜드산 녹용과 두충, 우슬, 천마, 오미자 등 고품질의 시니어 특화 원료를 배합한 시니어 맞춤 제품입니다.

70mlx30포, 26만원.
1일 2회, 1회 1포 섭취



제조원 및 판매원: 주|한국인삼공사



ALL DAY | 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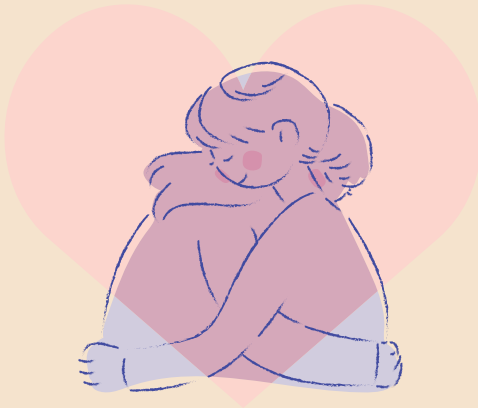
HEALTHY
LIFESTYLE

심

사 이 좋 은 사 이

삶의 소중한 관계 맺기

둘이라서 좋아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형제가
이제 나이 들어 술 한잔 나누며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파주에서 김해까지 가려면 꼬박 6시간은 운전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한 것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고향에는 두 살 터울의 동생이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이번 설에도 찾아뵙지 못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다. 동생은 일찌감치 고향을 떠난 장남을 대신해 20년 가까이 제사와 집안 대소사를 챙겼고 해마다 벌초를 해왔다.

대부분의 형제가 그렇겠지만, 동생과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인 나에 비해 동생은 외향적이고 활기차다. 나는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이지만 동생은 불임성이 좋아 언제나 주위에 사람이 넘쳐난다. 어릴 때는 “형제가 안 닮아도 어찌 저렇게 안 닮을 수 있을까”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성격뿐 아니라 생김새도 반대였으니까 말이다. 눈, 코, 입, 체격 등 어느 하나 비슷한 데가 없었다. 나 역시 가끔 ‘재가 내 동생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도 가끔 농담 삼아 “동생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삶도 반대다. 내가 문과를 졸업해 작가로 살아가는 반면 동생은 공대를 나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성격과 성향도 반대다. 나는 세심한 편이다.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이 많다. 계획을 세우고 변수를 고려한다. 하지만 동생은 일단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보기엔 무모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실행력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어릴 때는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나이 드니 오히려 이게 낫지 싶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난 고향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직장을 잡고 상경했다. 일산, 파주 지역에서 살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있다. 밀양이 고향인 아내와 나도 이제 파주 사람이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거리가 멀어지면 소원해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다. 동생과도 그랬지 싶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아니면 얼굴 마주칠 기회가 적고, 각자 가정을 꾸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최근 몇 년 새 아무래도 사이가 서먹서먹해진 것 같았다. 가까이 살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자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그럴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둘 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쑥스러운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을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잘 살고 있겠거니 여겼다.

동생과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눴본 것은 두 해 전이다.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후 두 달 만에 돌아가셨다. 나는 매주 파주와 김해를 오르내렸고, 내가 파주에 있는 동안 병간호는 오로지 동생의 몫이었다. 동생은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이겨내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동생과 자주 마주 앉았다.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동생의 모습은 언제나 대학생이었지만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됐다. 어머니에게 환갑이 넘은 아들도 언제나 아이로 보이듯, 40대 중반의 동생도 형에게는 언제나 까까머리 동생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동생과 술잔을 나눴다. “그동안 고맙다.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이 집 장남 역할을 했구나.”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괜찮아. 내가 가까이 있으니 내가 하는 거지. 미안해할 거 없어. 형도 나 어릴 때 나 많이 보살펴줬잖아.” 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한두 마디 말로 그간의 어색함이나 묵혀뒀던 감정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얼마 전, 예산 대흥마을에 취재를 다녀왔다. 이곳은 ‘의좋은 형제’의 무대이기도 하다. 내용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이다. 옛날에 우애가 좋은 형제가 살았는데 어느 가을날 밤, 추수를 끝낸 형제가 서로의 살림을 걱정해 자기 벼단을 지고 가상대 창고에 쌓았다. 둘 다 똑같이 행동한 나머지, 벼단은 줄지도 늘지도 않았다. 계속 벼단을 지고 옮기던 형과 아우가 마주치며 진실을 알고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 이야기는 우애의 상징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산 대흥마을을 다녀와 <레인 맨>을 다시 보았다.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다.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찰리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로부터 300만 달러에 달하는 유산이 자신이 전혀 모르고 지냈던 형에게 상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 살 때 헤어진 형 레이는 천재적 두뇌를 가졌지만 자폐증을 앓고 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찰리는 300만 달러의 상속인이 누군지 확인하러 요양원을 찾아가다. 형의 보호자가 되면 유산을 가질 수 있었다. 찰리는 돈 욕심에 요양원에서 형 레이를 납치해 LA로 떠난다.



그리고 암기력 천재 레이의 특별한 능력을 확인한 찰리는 도박장으로 가 엄청난 돈을 댄다. 이 영화는 형제의 2주간의 여정을 그렸다. 여러 사건과 에피소드를 겪으며 형제애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후반부로 가며 왜 두 형제가 떨어져 살아야 했는지, 왜 서로를 오해하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그 오해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세상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평범한 문장이지만 삶의 진리다. 언젠가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지만 동생만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줬다. 그때 동생이 내게 했던 말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나는 형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옹호해줄 수 있어.” 나는 동생의 이 말을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견뎠다.

영화 <레인 맨> 말미에서 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One for bad, two for good(하나는 나쁘고 둘은 좋아)” 이에 찰리가 대답한다. “We are two for good(우린 둘이야)”

나이가 드니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혈육이 있다는 것이 고맙고 든든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옳다. 의좋은 형제가 서로 몰래 베푼을 갖다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찰리가 레이를 챙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주말에 나들이 삼아 김해에 내려갈 생각이다. 가서 동생과 술 한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대화가 없었다.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생에게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둘’이라서 참 든든하다”고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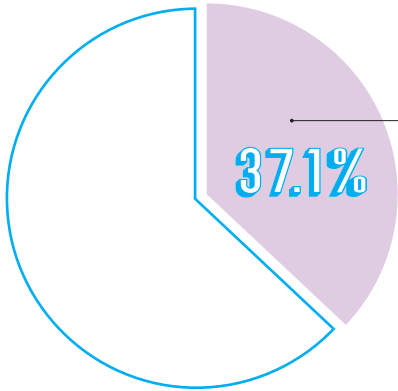
최갑수

시인이자 여행작가. 1997년 시 <밀물여인숙>으로 등단했으며, 여행을 다니며 글과 사진을 찍는다. 현재 ‘일과 삶’ 주제의 에세이 뉴스레터 ‘얼론 앤 어라운드’를 발행하고 있다.

HEY, BROTHER!

나의 호적메이트

둘도 없이 가깝거나 생판 남이거나, 극과 극을 달리는
요즘 형제자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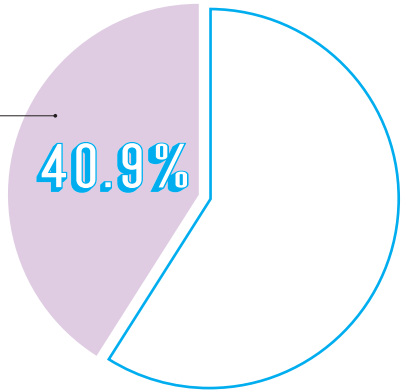


형제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 안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 준비 실태 조사'에서 형제와 연락하는 빈도를 물은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62.9%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37.1%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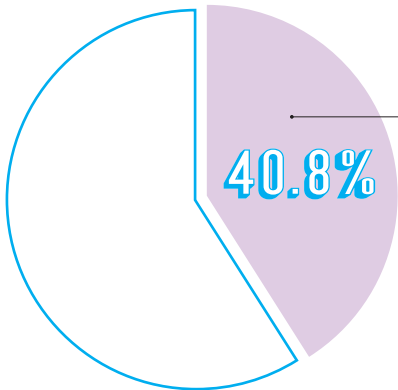
배우자는 '막내'이길 바란다

2020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 남녀에게 '예비 배우자의 이상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물은 결과, 형제는 있지만 막내이길 바라는 답변(40.9%)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 부양의 부담이 덜해서'가 주를 이뤘다.



힘들 때 형제에게 의지한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힘이 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0.8%(중복 응답)가 '형제'라고 대답했다. 이는 동성 친구(52.4%)와 어머니(48.1%)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10명중 4명



형제 없는 외동 자녀

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율은 39.4%. 10명 중 4명이 외동 자녀인 셈이다. 이는 부모가 맞벌이인 가구일수록 더욱 두드러져 절반(49.4%)에 가까운 5명 수준이다.

1만 4천명



쌍둥이 출생아 수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태어난 쌍둥이 출생아 수는 1만4,000명이다. 인공수정이 증가해 쌍둥이 임신 확률이 높아졌으며, 한 번에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심리로 인해 쌍둥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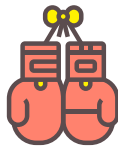
7.3점



형제자매와의 친밀도

교육 정보 업체 스쿨잼이 청소년에게 '형제자매와의 친밀도'를 묻은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3점으로 나타났다. 남자·여자 형제 모두 있는 경우가 7.6점으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로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밀도도 높아졌다.

56%



형제 간 다름은 성장 과정에 도움

현대자동차의 어린이 콘텐츠 제작 채널 키즈현대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들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다투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장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이 과반수 이상인 56%를 차지했다.

62만원



형제 결혼식 평균 축의금

2019년 신한은행이 만 20~59세 직장인의 소비 내역을 조사한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형제자매 결혼식 축의금으로 평균 6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카 돌잔치에는 평균 18만 원을 썼는데, 당시 금 한 돈 가격이었다.

59.2%



형제끼리는 모바일 메시지로 연락해

트렌드모니터의 '스마트폰 이용 및 음성 통화 관련 인식 조사'에 의하면 형제자매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주로 모바일 메시지(59.2%)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과는 대부분 음성 통화(91.3%)를 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건식사업단 유산균사업팀 박병준 씨와
두살터울 여동생 박세희 씨가
함께 만든 깊고 은은한 풍미의 시간.

우리 남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했습니다.



ALL DAY 정 관 정

HEALTHY
LIFESTYLE

심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저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동생이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장남인 제 역할까지 묵묵히 도와줘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가끔씩 돌이켜보면 자라면서 동생을 많이 못 챙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해요. 형만 한 아우 없다는 속담이 새삼스럽습니다. 오늘 유난히 동생이 어른스러워 보이네요.”



“저는 감정이 앞서는 편이고 오빠는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오빠에게 상의하는데요, 짚어주는 부분들을 듣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만큼 오빠는 걱정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편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우리 둘이서 뭔가를 함께한 적이 있었나?” “글쎄, 아마 처음 일걸?” 사람 좋아 보이는 눈매, 밝게 웃는 입 모양까지 닮은 이들은 KGC인삼공사 건식사업단 유산균사업팀 박병준 씨와 동생 박세희 씨 남매다. 집안 분위기가 화목한 편이라 가족들 모두 함께하는 시간은 많았어도 오늘처럼 둘이 따로 나온 적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어렸을 때는 엄청 친했어요. 두 살 터울이라 한 초등학교를 다니며 같이 놀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듬직한 오빠는 치킨의 다리 조각을 차지했지만 누군가 동생을 괴롭히기라도 하면 곧바로 나서서 해결해줬다. 세상의 많은 남매가 그렇듯 각자 다른 학교로 진학하고 사춘기를 겪으며 대화는 끊기고 데면데면하게 지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오빠가 대구 집을 떠나자 세상은 동생의 것이 됐다.

멀리 떨어져 사는 남매들은 어른이 되면서 사이가 소원해지기 쉬운데, 이 둘은 반대로 더 가까워졌다. 취업과 결혼, 가정을 꾸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했어요. 아기도 같은 해에 낳았어요. 애깃거리가 많을 수밖에요.”

그리고 부모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타지에 사는 오빠는 대구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동생에게 자주 안부를 챙겼다. “그럴 땐 역시 오빠예요.”

“가족들이 모두 회를 좋아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다들 술은 안 마셔요. 그래도 동생이랑 저는 맥주 한두 잔 정도는 하죠.” 요즘 다양한 맛의 수제 맥주가 인기가 동생이 궁금해했던 기억을 꼼꼼한 성격의 오빠는 잊지 않았다.



오늘 만드는 에일 맥주의 효모는 발효가 끝나면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다. 특유의 복합적인 향과 맛이 여기에서 온다. 시원하고 깔끔한 라거에는 반대로 아래로 가라앉는 효모가 쓰인다. 재료의 성질과 방식은 달라도 둘 중 하나만 고르기 어려운, 같은 듯 전혀 다른 맛과 풍미가 맥주의 매력이다. 남매는 오늘 에일을 선택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경을 집중해 맛과 향을 내는 데 몰두하다 보니 찌남매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박 남매 맥주’가 완성됐다. 차가운 잔에 에일의 풍부한 향과 즐거운 기분을 가득 채운다.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부부 동반으로 부탁해!” “그래, 살짝 취한 것 같으니 말할게. 사랑한다, 동생!”



박 남매 맥주에 곁들였어요

홍삼젤리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이 함유된 프리미엄 젤리. 한 입 깨물면 달콤한 맛과 씹쌀한 향이 어우러져 건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360g×2입, 3만원.

제조원: 로알제과(주) 판매원: 주 | 한국인삼공사



기억하니



형, 누나, 언니, 동생...
닮은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우리가 함께해온 이야기.



유병재 코미디언·방송작가

나는 내가 너무 멋있었다

설을 며칠 앞두고 시집간 작은누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번 설에 폭탄선언할 게 있으니 네가 집안 분위기 좀 띄우란다. 이혼하냐는 나의 질문에 작은누나는 넷째를 임신했다고 답했다. 축하받을 일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 물었더니 몇 년째 아이가 없는 큰누나 얘기가 나왔다. 언니는 몇 년째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넷째를 임신했으니 눈치가 보인다. 설 연휴가 다 지나가도록 누나는 결국 말하지 못했다. 결국 내 입으로 엄마한테 누나의 임신 사실을 말했고 처음엔 놀라고 큰누나를 걱정하던 엄마도 늘상 무뎠던 아들이 주저리주저리 애교 부리며 떠들자 이내 기분이 좋아지셨다. 서울에 올라온 후 나는 누나에게 집에 잘 말해놨으니 걱정 말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그런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나의 노력으로 온 가족의 걱정과 갈등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았나! 내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지 않았나! 나는 내가 너무 멋있었다! 내가 그 걱정과 갈등의 씨앗 빨아먹고 산 놈인 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사촌 포함 누나만 여덟 명인 집안에 막내아들로 태어난 나는 홀로 고고하게 '깨지기 쉬움' 딱지를 붙인 택배 박스 같았다. 그 딱지 하나만으로 누구도 내 위에 부당함을 쌓아 올리거나 폭언을 던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나들이야말로 깨지기 쉬운 걸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다 커서야 깨닫게 됐다.

__ 유병재 <블랙코미디>(비체, 2017) 중에서



김태균 가수·코미디언

막내보다 다정한 우리 형

우리 집 4남매의 장남이고 나보다는 여덟 살 많은 우리 형. 막내인 나보다 키도 머리도 훨씬 작다. 뭐 그리 눈이 높은지 아직까지 솔로인 우리 형은 외로울지는 몰라도 나보다 자유롭다.

신문과 온라인으로 뉴스나 세상사는 이야기를 모조리 챙겨보는 상식 박사 우리 형. 언뜻 보면 아는 척하기 좋아하고 말 많은 사람 같지만 눈치가 좀 없어서 그렇지 사람들을 좋아해서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사람이다.

돈 버는 재주가 없었던 우리 형. 재주가 많은 막내보다 가진 건 적지만 부모님과 의 삶이 있는 추억은 막내보다 몇 만 배는 더 가진 부자다. 그런 형을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했던 어머니는 하늘에서 장남과 막내가 지내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난 표현을 잘 못하지만 형은 다르다. 가끔 통화하면 끊기 전에 항상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해, 동생.” 멋쩍은 막내는 마지못해 “알았어. 형~ 나~도.” 사랑해~ 형!

__ 김태균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몽스북, 2021) 중에서



남궁인 의사·작가

형은 세상 가장 한심한 존재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야말로 동일한 성장 환경이다. 같은 유전자 덕분에 외모 또한 닮았다. 결정적으로 물려받은 성도 두 글자나 되어 이름까지 흡사하다.

거기까지다. 동생은 고등학생 때 이미 나보다 10cm 더 컸다. 그때부터 혼한 형제간의 다툼이 없어졌다. 동생한테 맞기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과로 진학해 늘 변변치 않은 성적표를 받다가 대단한 요행을 발휘해서 의대에 입학했다. 반면 동생은 문과 모범생으로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경영대에 진학했다. 대학생이 되자 나는 단돈 백만 원만 들고 중국부터 인도까지 대륙 횡단을 떠났고 동생은 우아하게 서유럽 일주를 다녀왔다. 동생은 돈을 모아 값나가는 옷과 신발을 샀고 나는 동생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가 혼났다. 동생은 헬스로 몸을 만든다며 단백질 보충제를 샀고 나는 헬스가 싫었지만 몸은 좋아지고 싶어 몰래

보충제를 잔뜩 먹었다가 심하게 체했다. 대신 나는 국토도 보 종주를 다녔고 록 밴드를 했으며 시와 에세이를 썼고 요리를 했으며 집을 떠나 괜히 고시원에 나가 살았다. 동생은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을뿐더러 철없는 형만 보면 혀를 끌끌 찼다.

현재 동생은 주식과 펀드, 채권을 다루는 일을 하고 나는 투자 손실이 두려워 10년 넘게 월급을 몽땅 예금 통장에만 모았다. 나는 응급실에서 일하지만 위내시경이 무서워 자꾸만 미루고, 건강한 동생은 응급실 근처에도 올 일이 없지만 건강 검진은 잘 받는다. 여러모로 동생이 보기에 형은 세상 가장 한심한 존재다. 그는 내 처절한 경제 감각과 생활상의 무능과 기타 수많은 사항을 성실하고 자애롭게 꾸짖는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인 나를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세상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동생이 나와 비슷하게 자랐다면 이런 가르침은 없었을 것이다. 동생에게 혼날 수 있어 다행이다.



남인숙 작가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저자

동생들을 사랑하세요?

“너는 네 자매들을 사랑하지?” 어떤 맥락에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외국인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거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를 따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 담는 건 차마 못했다. 어릴 때는 약간의 피도 볼 정도로 다름이 일상이었고 서로 못 볼 꼴을 참 많이도 보여준 피붙이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합당한가 싶었다. 새로 산 운동화나 미남 배우를 향해서도 해본 그 말을 여동생들에게는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닐곱 살 무렵의 나는 동생들의 존재가 귀찮고 부끄러웠던 것 같다.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당시 구호의 영향이었을까, 막내를 등에 업고 둘째 손을 친 채 걷는 엄마 곁에 따라붙어 걷는 게 싫었다. 다 같이 외출을 할 때면 일행이 아닌 척 멀찌감치 떨어져 걸었던 기억이 난다. 여유롭고 조용하게 사는 걸로 보이는 외동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아마

도 날 때부터 개인주의자였을 내게 동생들은 책임의 대상이고 일상의 파괴자였다.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도 철없던 시기에조차 동생들이 없는 평행우주의 세계를 가정해본 적은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볼수록 자매에 대한 감정이란 ‘사랑’이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느껴진다. 그들은 팔이나 다리나 같은 신체 일부처럼 당연한 내 삶의 일부다. 내 손바닥에 대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딱히 감정의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나이가 되면서 자매들의 존재는 좀 더 각별해졌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은 못할 것 같지만 누가 다시 물어본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응. 내 손바닥이나 발바닥만큼.”



손웅정 축구감독

흥민이에게 흥윤이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흥윤이와 흥민이가 함께 축구를 했는데 흥윤이가 부상으로 이른 은퇴를 결정하고 흥민이는 축구판 안에서 큰 인정을 받을 때 가족 안에서 갈등이 없었느냐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두 형제간에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망하지만, 두 아이가 지닌 개성을 비교하면 둘 다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우리 아이들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건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모양은 다 제각각이다.”

어린 흥윤이와 흥민이를 데리고 축구 훈련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두 아이의 관계를 살폈다. 이 두 아이는 가장 가까운 피붙이 형제이지만 가장 날카로운 맞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흥민이는 어릴 때 형이 제일 좋은 협력자였다고 고백했다.

프로선수로 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면 흥민이는 아직도 형에게 전화해 흥금을 털어놓는다. 흥윤이가 없었다면 흥민이 혼자 그 고된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나는 이 두 아이에게 늘 감사한다.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다.

축구선수로 대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흥윤이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가정을 꾸리고 축구를 즐기면서 축구 지도자로서의 삶을 산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 각자가 다른 개성을 지녔다. 김용택 시인의 말을 기억해본다. “나무는 정면이 없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다. 나무는 경계가 없다. 모든 것이 넘나든다. 나무는 볼 때마다 완성되어 있고, 볼 때마다 다르다.” 아이들은 그렇게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다.

— 손웅정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수오서재, 2021) 중에서

같은 꿈을 꾸는 자매들의 공간

자매들의 DNA 시너지가 폭발하는 아트 하우스 두 곳에 주목하자. 한 곳은 통의동 양봉콜렉터. 순수미술과 아트 디렉션을 전공한 자매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셀렉트숍이다. 다른 한 곳은 연남동 드로터스. CF 미술감독인 언니와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동생이 합심해 가구 편집숍을 오픈했다.

양봉콜렉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3층
드로터스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1길 12



© 김민정

DAY FOR TWO

형제, 자매, 남매의 찐 케미를 위하여

© 과격자매단



현실 자매의 꿀잼 일상

발랄하고 유쾌한 웃음이 필요할 때는 웹툰 <과격자매단>이 안성맞춤이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성격도, 취향도, 생활 습관도 너무 다른 언니와 동생. 두 사람이 그려내는 좌충우돌 라이프는 형제도, 남매도 모두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일상적이고 재미있다.

과격자매단 page.kakao.com/home/52854334

영화로 배우는 관계 맺기

서로 옥신각신하기 바쁜 현실 속 형제자매들, 과연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복 자매들의 따뜻한 성장기를 엿보고 싶다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남매의 동화 같은 추억에 빠져들고 싶다면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진정한 형제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면 배리 레빈슨 감독의 <레인 맨>을 추천한다.



© 그린레미디(주)



© (주)티캐스트

구성 임혜진



© 포리포이

서로의 얼굴을 그려보아요

대한민국의 흔한 형제남매들, 서로의 얼굴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1초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자. 나와 닮은 듯 다른 눈, 코, 입을 관찰하다 보면 숨겨왔던 진한 우애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 미리 사진을 보내면 스케치를 해주니 그림 실력이 서툴러도 괜찮다.

풍랭미술서 서울시마포구 성미산로10길 61층
토리토이대구 북구 산격로10길 37



© 양브로의 정신세계

마음을 치료하는 형제가 있다

풀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양재웅 형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심리상담소. 구독자들의 사연을 소재로 심도 있는 상담과 분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유일의 형제 정신과 의사인 만큼 형제자매 사이의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않을까?



© 작가정신

고전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면

미국 소설가 루이자 메이 울컷이 1868년 발표한 장편 소설 <작은 아씨들>은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삶을 꾸려나가는 네 자매의 이야기. 그 따뜻한 서사 속에서 형제자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자.



ALL DAY 정 관 장

HEALTHY
LIFESTYLE

심

정관장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관장 이야기



좀 더 가까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일본법인 영업팀 정한결 팀장,
OTC영업팀 무라노 팀장

일본 소비자들은 분명히 달랐다. 1967년부터 정관장 제품이 소개됐고 건강식품시장 규모 세계 3위를 차지하는 국가. 기획의 땅처럼 보였지만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KGC인삼공사 일본법인이 첫발을 내디딘 현지 시장,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무엇보다 홍삼을 낫설어했다. 일본에서는 홍삼을 ‘고려인삼’이라 부른다. 대개 부모나 노년층으로부터 이름만 들어본 정도였고 그 외의 정보는 잘 알지 못했다. ‘쓴맛이 강하고 일부 노인들만 먹는 일종의 약’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다.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의 대중화 전략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타블렛과 캡슐 형태의 제형 개발로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기호성을 높였다. 유통 채널 확장은 필수였다. 일본 전역의 드럭스토어로 유통을 확대하고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 비대면 채널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본법인의 매출 규모는 점차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B2C 건강식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전체 매출 중 건강식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홍삼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세심한 고객 관리, 현지 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을 병행하며 더 쉽고 편하며 친근한 정관장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KGC인삼공사 일본법인 정한결 영업팀장의 의지다.

건강식품시장 규모 세계 3위국 일본은 시장 안착의 문턱도 높았을 텐데요,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나요?

정한결 진출 초기에는 현지 파트너사에게 정관장 제품을 수출·판매해오다 2011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 모델을 도입했죠.

일본 최대의 변화가 신주쿠에 직영 매장을 열고 소비자에게 공격적으로 정관장과 홍삼 제품을 알렸는데요, 쉽지 않았 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현지 맞춤화 전략을 펼쳐나갔 어요.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면 기호성이 먼저죠. 쓴맛이 적 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어요.

유통 채널도 다양화했습니다. 의약품과 건강식품 두 축으로 나누어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추진했어요. 그 결과 일 본 전역의 드럭스토어를 포함해 유통 매장 수는 5,000여 개 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구 매가 늘고 있어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도 확대하고 있어요.



신주쿠 중심에 위치한 일본법인 직영 매장.
2011년 법인 설립과 함께 문을 열고 정관장 제품을 알리고 있다.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왼쪽) OTC 영업팀 무라노 팀장,
(오른쪽) 영업팀 정한결 팀장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2011년 대지진,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복지 단체를 지원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홈쇼핑, 드럭스토어, 대형 마트 등 유통 채널 확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한결 일본 소비자에게 정관장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그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선택했죠. 짧은 시간 동안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판매까지 이어지니까요. 2016년 현지 소비자 기호에 맞춰 개발한 캡슐형 제품 '건미력'을 일본 최대 홈쇼핑 방송 '숍채널Shop Channel'을 통해 출시했어요. 제품 소개는 물론 정관장 인삼의 계약 재배 방식, R&D 역량, 제조 시설, 철저한 품질관리 등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설명했죠. 소비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건미력은 출시 2년 만에 특집 방송을 진행할 정도로 성과가 높고 지금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무라노 2017년부터는 드럭스토어와 대형 마트에 입점을 시작했어요.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고 대형 한국계 업체와 제휴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왔어요. 매출 규모는 아직 도드라지지 않지만 성장세는 빠르게 이어졌어요. 2020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전략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정한결 2016년 이전에는 전체 매출 중 의약품 비중이 60%, 건강식품 비중이 30% 정도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B2C 건강식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2021년 매출 비중이 40%까지 늘었어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채널이 더욱 중요해졌죠. 법인 직영 온라인몰은 물론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후 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 중입니다. 직영 온라인몰은 일본 현지 시장 특성에 맞춰 '정기 판매 Subscription'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정기 구매를 하는 고객에게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별 구매 주기에 따라 추천 제품과 효능, 건강 정보, 할인 쿠폰 등도 함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 소비자를 위한 타블렛 제형의 제품. 주 | 한국인삼공사



한류의 영향을 받아 일본 내 최고 인기 제품인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주 | 한국인삼공사

게 제공해 정관장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또 웹사이트, 물류 창고, 콜센터를 연계해 온라인 사업의 핵심인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세심한 고객 응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여려면 문의와 컴플레인에도 원활히 대응하며 노력해야 해요.

일본에서 인기 있는 정관장 제품은 무엇인가요?

정한결 과거 일본 소비자는 홍삼 특유의 쓴맛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덜 느껴지고 섭취가 쉬운 타블렛이나 캡슐 제품이 인기가 좋았죠. 최근에는 맛이 쓰면 홍삼 함유량이 더 높고 효능도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액상 제품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대표적이죠. 또 젊은 층에서 SNS나 넷플릭스 콘텐츠 등을 통해 한류 문화를 접하며 정관장 홍삼 제품의 인지도도 함께 올라가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작년 '몽드 셀렉션'이라는 국제 품평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배경과의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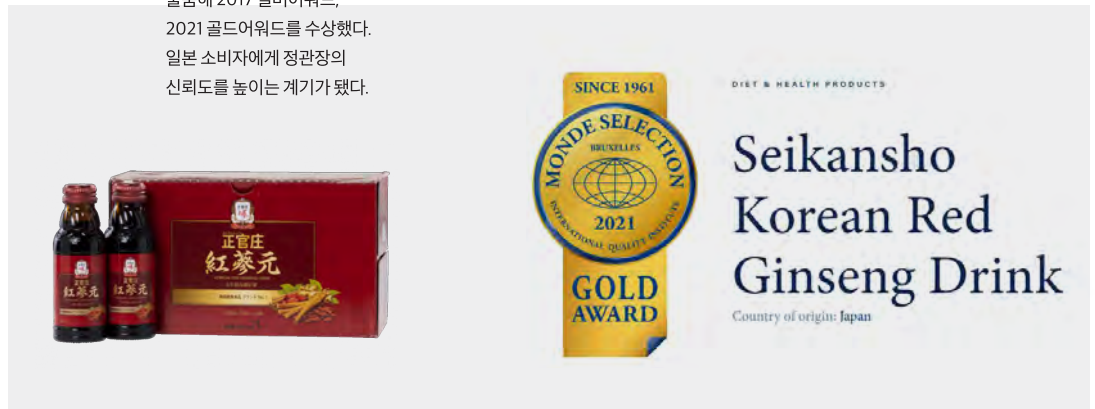
무라노 정관장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국제적인 품평회에 출품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벨기에 몽드 셀렉션 Monde Selection은 '식품업계의 노벨상'이라 불릴 정

도로 권위가 있는 품평회입니다. 8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품의 맛과 향, 디자인 요소는 물론 소비자 제공 정보의 사실성과 정확성까지 평가합니다. 특히 일본 브랜드의 출품 비중이 높아 소비자 신뢰도가 높죠. 저희는 다이어트&건강 제품 부문에서 2017년 실버어워드, 2021년 골드어워드를 수상했어요.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에게 정관장 브랜드와 제품이 믿을 만하다는 근거 제시인 셈이죠.

일본법인의 향후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정한결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소비자 특성상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운데요. 바꿔 말하면 일단 고객이 되면 단골이 돼 쉽게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보다 밀접한 고객 맞춤형 전략을 펼쳐 신규 유입을 확대하려 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홍삼 효능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본에서 가장 보편화된 포장법인 파우치 형태의 타블렛 제품 개발로 친근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소용량의 트라이얼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해 개인의 기호를 충족하는 본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정관장이 일본에서도 최고의 홍삼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일본법인은 국제 식품 품평회 '몽드 셀렉션'에 홍삼원을 출품해 2017 실버어워드, 2021 골드어워드를 수상했다. 일본 소비자에게 정관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15년을 오고 가는 동안 ‘손님’이라는 딱딱한 꼬리표가 떨어진 지 오래.
호들갑스럽지 않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우는 살가운 이웃이 됐다.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다.

서서히 스며드는 진심

서유림 정관장 가맹점사업자(내서점) & 성점순 고객

그런 사이가 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이. “저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죠?” “글쎄, 그걸 세볼 필요가 있었나?” 창원에 자리한 정관장 내서점 서유림 가맹사업자와 성점순 고객의 대화가 정겹다. 첫 만남을 되짚어보니 어느덧 15년. 굳이 셈하지 않아도 허물없이 편하고 익숙해진 사이. 고객을 넘어 언제 만나도 편하고 좋은 인연으로 굳어졌다.

창원 시내와 거리가 있는 정관장 내서점은 서유림 가맹사업자가 처음부터 일군 매장이다. 직장 생활을 하다 둘째 자녀 임신으로 가진 휴지기는 오히려 내일을 좀더 진지하게 설계할 기회였다. 아이를 키우면서 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이 없을까?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게 정관장 매장이었다.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가 좋았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창원 시내에는 기존 매장이 많았던 터라 외곽 지역인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매장을 열었다.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줄지어 들어섰지만 2005년 오픈 당시만 해도 시골로 불리던 곳이었다.

당찬 출발과 달리 매장에서의 하루하루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겉도 나고 낯설었어요. 오죽하면 손님이 들어오는 게 무서웠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둘째 아이 출산 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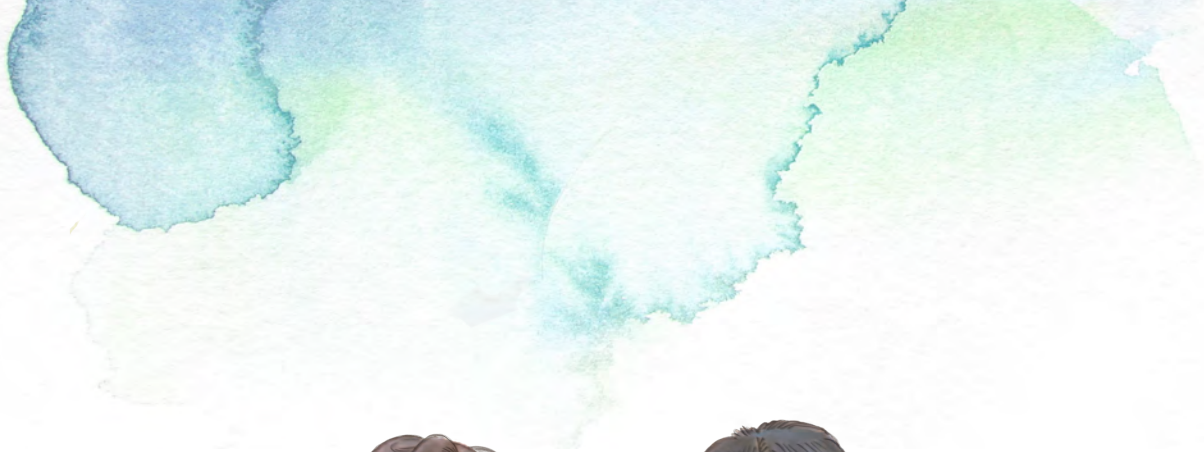
젓먹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지런히 오가며 매장을 지켜야 했다. 서유림 가맹점사업자의 고군분투를 들은 성점순 고객은 전혀 상상이 안 된다며 고개를 가웃거린다. “늘 웃으며 여유로우니 짐작을 못 했네. 애를 참 많이 썼어.” 따뜻한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겁 많던 서유림 가맹점사업자가 자신감을 충전해 우수가맹점을 넘어 명예 가맹점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자신을 딸처럼, 조카처럼, 동생처럼 여기며 친근하게 다가온 고객들 덕분에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서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성점순 고객님은 ‘매장에서 점심을 챙겨 먹기 힘들지 않냐’며 고구마와 직접 담근 김치도 가져다주세요. 제가 ‘이모’라고 부를 만하죠? 오며 가며 편하게 들려주시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가 편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오면 언제든 차를 건네며 반갑게 맞아주는데 안 올 이유가 있다. 가게도 참 깔끔하잖아요. 더욱이 내 가족 건강도 꼼꼼하게 챙겨주니 고맙지.”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진 두 사람 사이에는 ‘건강’이라는 화두가 빠지지 않는다. 성점순 고객은 홍삼을 최고의 건강 비결로 꼽으며 15년째 정관장 내서점을 찾고 있다.

수
영
환
트
스
관
리
영
양
사
의
일
일
기
수
집
기
법



성점순 고객

서유림 정관장 가맹점사업자(내서점)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정관장 내서점 내부. 서유림
가맹점사업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듯 한편에 명예 가맹점
트로피가 진열돼 있다.





정관장 내서점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35

전화 055-232-0349

영업시간 10:00~21:00 연중무휴

정관장 명예 가맹점이란?

탁월한 고객 서비스와 CS 마인드로

총 5회 우수가맹점으로 선정된 매장입니다.



수다 속에서 읽는 고객 건강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면서 화애락 본을 선물했어요. 제가 면역력이 약한 편이었는데, 다 챙겨먹고 나니 몸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관장을 꾸준히 찾게 됐죠.”

홍삼의 힘을 제대로 느낀 성점순 고객이 제발로 찾은 첫 매장이 바로 정관장 내서점이었다. 자주 오가며 서유림 가맹점사업자와 숙내를 터놓고 지내다 보니 가족보다 더 살뜰하게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사이가 됐다.

“편하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민거리나 불편한 부분을 말하게 되잖아요. 이를 흘려듣지 않고 제가 아는 선에서 보완할 점을 찾아드리죠. 고객님은 처음에는 화애락을 주로 드셨는데, 홍삼 달임액이 더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만족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추천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알파프로젝트 구강건강’을 권해드렸어요.”

“제가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점순 고객이 놓치지 않고 맞장구를 친다. 고객을 향한 관심과 제품 이해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맞춤 추천이 빛을 발한다. 민음이 두터워진만큼 아들과 딸, 며느리를 위한

선물도 홍삼이 1순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성점순 고객은 홍천웅부터 화애락, 굿베이스 홍삼담은 석류 등 가족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꾸준히 구입하고 있다.

“물건 하나를 더 팔아보겠다고 터무니없는 제품을 권하지 않아요. 제가 맨 처음 정관장 매장에 끌린 이유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건강을 챙겨주는 일 말이예요. 고객들이 지나가듯 하는 말도 잘 귀담아 듣다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적절히 권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서유림 가맹사업자는 고객들이 더 편하게 매장에 머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치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봄별이 잘 드는 매장 안쪽 창가 자리에 좀 더 아늑하게 고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제품도 더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고. 이제 더 자주 오겠어.” “언제나 환영이죠. 제품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이모님을 위한 차 한잔은 제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 건강만 잘 지켜주세요.” 서유림 가맹점사업자의 진심 어린 당부가 이어진다.

일상에서 쌓은 인연, 소소한 간식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인연은 참 소박하다. 여기에 진심이 스며들면 10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끈끈함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10년을 약속하며 맞잡는 두 사람의 손에 온기가 흐른다.

영국 왕립학회와 인삼



고려인삼이 유럽에 소개된 것은
17세기 초 동인도회사를 통해서다.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가
‘만병통치약 인삼’의 명성을 알린 것도 이 무렵부터다.
유럽에서 인삼은 귀중한 자원으로 주목받으며
영국 왕립학회와 프랑스 왕립과학원이
연구에 매진하기도 했다.
문헌 속에서 찾아낸 세계사 속
인삼의 다채로운 여정을 함께한다.

서양에서 근대를 여는 가장 큰 동력의 하나는 과학혁명이었다. 과학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한 기관은 영국의 왕립학회 Royal Society와 프랑스의 왕립과학원 Academie Royale des Sciences이다. 1662년 국왕 찰스 2세의 인가를 받아 출발한 왕립학회는 세계 최초로 과학 학술지를 발간하고 과학 언어와 동료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실험 방법을 체계화하는 등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몇 년 뒤 프랑스에서도 재상 콜베르의 주도로 왕립과학원이 설립됐다. 민간인에게 개방됐던 영국의 왕립학회에 비해 프랑스 왕립과학원은 국왕 직속의 과학자 관료들로 이뤄진 중상주의 정책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처럼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과학이 신성을 대치하기 시작하는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데 이들은 공히 핵심적인 선도자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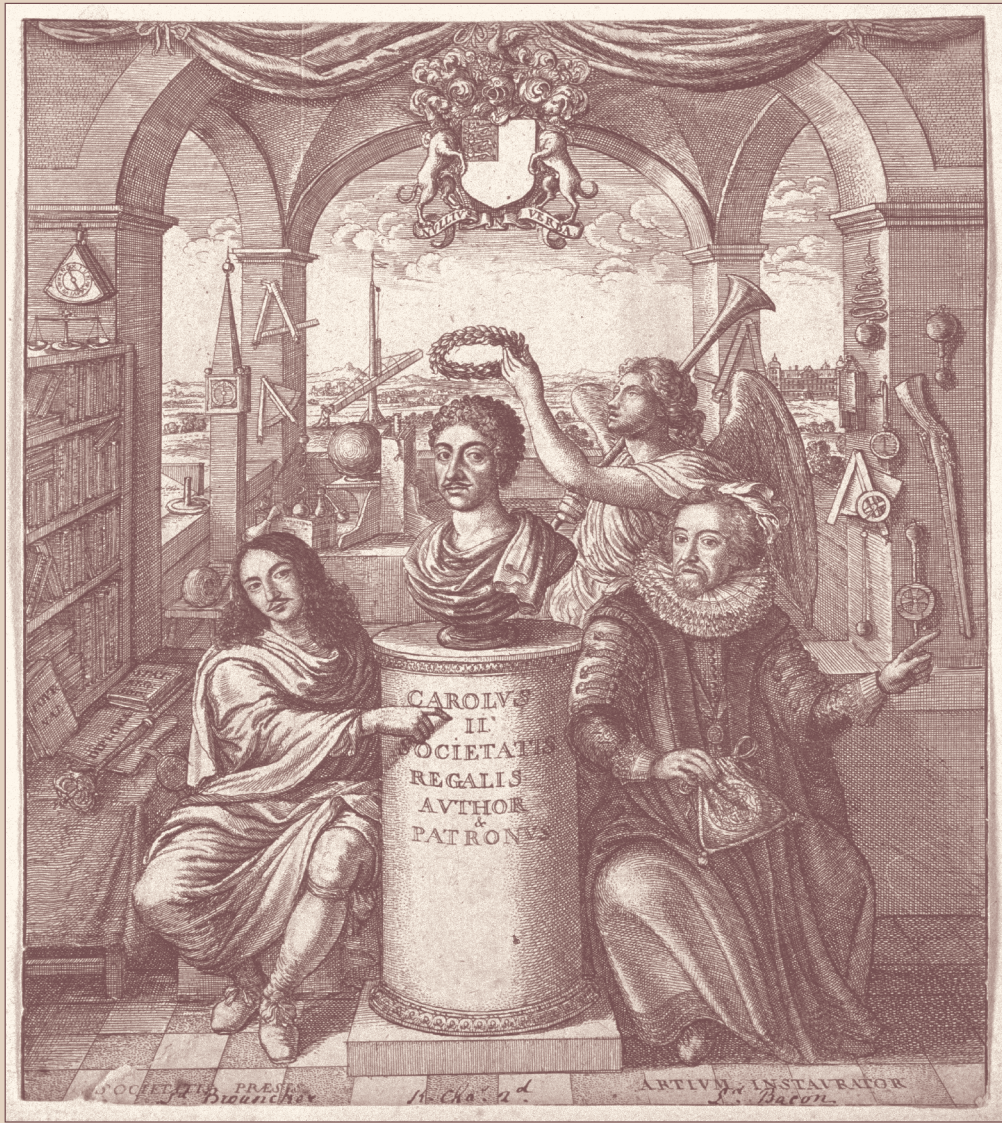
영국 왕립학회는 1665년 기관지인 <철학회보 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를 창간했다. 그 창간호에 인삼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들이 인삼에 큰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논문은 프랑스인 멜쉬제데크 테브노(Melchisedech Thevenot, 1620~1692)의 여행기(Relation de divers voyages curieux)에서 인삼에 대한 부분만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과학자이자 발명가, 작가, 외교관을 역임한 테브노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에 부응해 해외 여러 곳의 자연과 자원, 문물을 소개하는 학술동아리를 이끌었다. <철학회보>에 실린 테브노의 인삼론은 허브나 나무, 돌 등을 이용하는 중국 의약학의 독특성을 다룬 후 곧바로 중국인들이 숭배하는 인삼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인삼은 1파운드에는 3파운드를 지불할 정도로 값비싼 약재로서, 놀라운 원기 회복제이자 강장제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왕립학회가 인삼을 주목해 학회지에 실었던 것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움직임이었다. 매독처럼 갑자기 창궐한 전염병과 수많은 역병, 그리고 잦은 전쟁으로 생존에 대한 욕망이 절절했던 17세기 유럽에서 국왕을 비롯한 엘리트 계층의 권력외지는 치료제, 즉 약으로 쓰일 식물을 일별하는

본초학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럽에 나타나기 시작한 식물원과 ‘호기심의 방 Cabinet of Curiosity’ 등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인삼을 주요 수집물 목록에 올리기 시작한다.

왕립학회의 기록에는 과학자들이 직접 동아시아로부터 인삼을 들여와 관찰하고 효능을 실험했던 장면들이 많이 남아 있다. 1679년에는 철학자이자 의사로서 천연 약재에 관심이 많았던 토머스 브라운(Sir Thomas Browne, 1605~1682)이 왕립학회 회원인 아들 에드워드(Dr. Edward Browne, 1644~1708)에게 “인삼을 잘 관찰했다”는 편지를 썼다. 브라운은 예수회 학자인 마르티니와 키르허(Athanasius Kircher, 1602~1680)가 내놓은 인삼에 대한 저술들을 인용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왕립학회의 정기 회합에서는 의사 앤드류 클렌치(Andrew Clench, ?~1692)가 중국 종이에 싸인 인삼을 보여주며 자신의 실험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건축가로 역사에 남은 크리스토퍼 렌(Sir Christopher Wren, 1632~1723)은 당시 왕립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클렌치의 실험에 동참하며 실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인삼은 점차 영국 과학자들 사이에서 친숙한 주제가 되어 갔다. ‘영국 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레이(John Ray, 1627~1705)는 <식물의 역사 Historia Plantarum>(1688)에서 인삼을 “중국 뿌리 님시 혹은 인삼 Chinese root Ninsi or Ginseng”이라고 부르며 ‘만병통치약’이라고 기록했다. 인삼은 “손가락 굵기 정도의 뿌리로, 길고 갈라져 있으며 같은 갈색을 띠고 속은 좀 더 희다. 맵고, 향기로우며 쓴맛이 있다. 이 식물은 우리 약방에서는 거의, 혹은 전혀 처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레이는 인삼을 그린 삽화를 게재하기도 했는데, “여기 들어간 ‘정밀한 그림’은 중국에서 왕립학회로 보내온 것이다”라는 설명을 달아두었다.

인삼이 학계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정황은 <왕립학회 주요 수집품 카탈로그>(1681)에 인삼뿌리가 수록됐다는 사실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자료 협조 (주)유미니스튜디오 그림

<런던 왕립학회의 역사>(1667)에 실린 영국 왕립학회 출범 삽화. 학회의 설립을 승인하고 후원해준 찰스 2세의 흉상을 중심으로 학회 초대 회장인 수학자 윌리엄 브롱커 자작(왼쪽)과 프랜시스 베이컨(오른쪽)이 등장한다.
출처: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이 뿌리는 한 중국인 의사가 보내온 꾸러미에 들어 있던 것으로, 야생인삼이 한국에서만 자란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맨드레이크나 기타 뿌리처럼 두 개의 다리로 갈라져 있음.

달콤한 맛,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쓴맛이 난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단맛이 있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서

쓴맛이 남. 야생으로, 어디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자란다. 또한 통경, 중국,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다. 간질, 고열과 다른 만성적, 심각한 질환에

쓰인다. 단독 혹은 약재와 함께 쓰인다.

매우 값비싼 식물로 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Nehemiah Grew, Musaeum Regalis Societatis
(London, 1681), p.227.

왕립학회가 인삼에 주목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영국에서는 인삼을 이용한 치료법을 담은 임상 사례집이 출판됐다. 로버트 윤티(Robert Wittie, 1613~1684)가 쓴 <동인도에서 수입한 닌 혹은 닌징이라 불리는 뿌리에 대한 고찰 Some Observations Made Upon the Root called Nean, or Ninsing, Imported from the East-Indies>(1680)이 바로 그것이다.

윤티는 요크셔에서 온천 요법을 내세워 부유한 환자들을 유치하던 야심만만한 의사로, 당시 과학자들이 주목한 인삼을 발 빠르게 환자들 치료에 적용했다. 이 사례집은 왕립학회 회원에게 보낸 편지를 발췌한 형식을 취한 일종의 홍보성 팸플릿으로, 지방에 거주하던 윤티가 런던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인삼에 관한 최신 유행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티는 선물로 받은 인삼 한 꾸러미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한 결과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인삼은 ‘세계 최고의 약’이며, 자신은 인삼을 사용해 주로 폐질환과 전반적인 기력저하, 고열과 통증을 치료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인삼이 특히 폐결핵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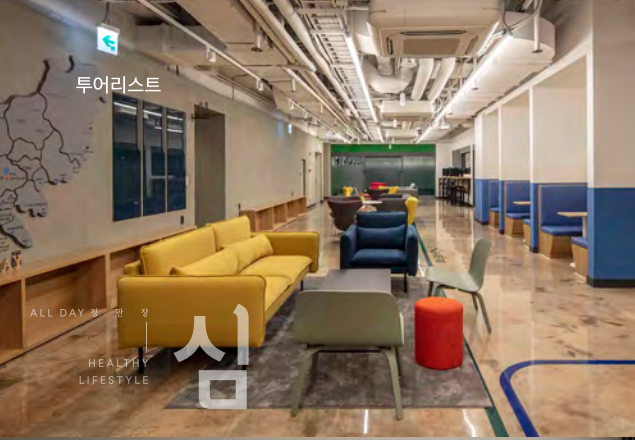
강조하면서 폐결핵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든 간에 인삼은 환자의 상태를 탁월하게 개선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썼다.

홍보성 팸플릿의 특성상, 그리고 야심만만한 윤티의 성정을 반영하듯 이 사례집에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임상 사례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앤드루 마블(Andrew Marvel, 1621~1678)은 윤티가 살던 요크셔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다. 마블은 영국의 내란 시절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를 오갔던 행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치가이기도 하다. 윤티는 또한 심지어 교황이 인삼을 칭찬했다고 썼는가 하면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을 언급하기도 한다. 보일은 열네 번째 아이로 태어나 평생 병약했다고 알려지는데, 당시로는 장수에 해당하는 74세까지 살았다. 윤티는 보일이 인삼을 애용했으며 “인삼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상에서 보내온 약이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보일은 왕립학회의 창립멤버였기에 당시 뜨거운 주제였던 인삼에 대해 물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임원을 지냈으며 예수회의 중국 선교를 열렬히 지원했던 이력으로 미루어 동인도회사가 특별한 사무역품으로 취급했던 고려인삼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보일이 애용했다는 고려인삼은 당시 영국에서 고관대작 사이에 선물로 쓰였으며 시장에서는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던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를 두었던 보일에게 인삼 대금은 큰 문제가 아니었으리라.

설혜심 님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서양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삼의 세계사>를 비롯해 <소비의 역사>
<온천의 문화사> 등 여러 저서가 있다.



구성 편집부 사진 KT&G 상상마당 부산, 뮤지엄 원, 아레이저스

붓산에 가면



푸른 오션뷰와 힐 컬처를 함께 즐기는 도시, 부산의 요즘.

스면에서 하루 자고

HOTEL

KT&G SANGSANG MADANG BUSAN STAY

KT&G 상상마당 부산 스테이



상상마당 부산 스테이 둘러보기
www.youtube.com

도시의 중심지 서면에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 KT&G 상상마당 부산은 쾌적한 숙박 시설이 함께한다. 상상마당 부산 스테이는 건물 7층 로비 라운지부터 시작된다. 넓고 여유 있는 공간과 좌석배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객실은 총 24개이며 10개의 프라이빗 룸과 14개의 셰어 룸으로 구성돼 있다. 셰어 룸은 1인 1베드 예약제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객실 밖의 공용 욕실과 샤워실을 사용한다. 프라이빗 룸은 인원과 베드 형태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객실로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꾸민 테마룸이 인기다. '와글와글 어묵탕룸' '부산갈매기 런즈룸' '망개떡이랑 룸'을 비롯해 그라피티 가득한 스트리트 감성의 '커스텀슈방', 정관장 온라인쇼핑몰 콘셉트의 '정물룸' 등이 그것. 전 객실에 최고급형 포켓스프링 침대와 친환경 소재 침구와 리넨류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용 주방, 비즈니스 센터, 세탁실이 마련돼 있다. 로비 라운지에 비치된 도서와 보드게임 도구도 빌릴 수 있다. 숙박 요금 할인 이벤트나 특별한 날을 위한 패키지 상품 판매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 후 예약하면 좋다.

주소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7층 www.sangsangmadang.com

갤러리 투어도 하고

ART & CULTURE



MUSEUM 1

뮤지엄 원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뮤지엄 원은 국내 최대, 최초의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2,314㎡ (700평) 규모 공간에 설치된 약 8,000만 개의 LED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자랑한다. 특히 10m 높이의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선 메인홀에서는 여러 작품이 반복 재생되고 있는데 이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우주의 수많은 별이 비처럼 쏟아져내리다 거대한 숲속으로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사방이 온통 초록빛으로 변한다. 몽환적일만큼 화려한 빛의 움직임 속에서 인생샷도 건질 수 있다. 거대한 폭포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뮤지엄 원을 설립한 예술 콘텐츠 전문 기획사 '쿤스트원KUNST1'은 '우리 삶의 주변에 예술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학생과 회사원, 주부, 노인과 어린이가 모두 쉽고 재미있게 예술을 즐기도록 전시를 기획한다. 누구나 동경하는 미지의 세상을 그린 <완전한 세상>, 생물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슈퍼 네이처> 등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전시를 개관 이래 선보이고 있다. 3월 전시 <치유의 기술>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21인이 참여했다. 작가의 경험과 사유, 삶과 철학의 여정을 함께해보자. 주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20 www.kunst1.co.kr

영도, 시장, 골목, 도시 재생

STREET



AREA6

아레아식스

오가는 이 없는 골목, 버려진 빈집에 사람들이 모인다. 영도 봉래시장의 복합 문화 공간 아레아식스. 'Artisan RE Avenue'의 준말로 지역 예술가와 장인들이 모여 새롭게 만드는 골목과 이 자리에 있던 여섯 채의 집을 뜻하는 이름이다. 부산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해 만든 공간으로 본사가 이곳 영도다. 과거와 미래, 가장 낡은 것과 가장 트렌디한 것이 공존하는 도시 부산에서 영도라는 지역은 삶과 사람에 더 가깝다.

옛 골목의 정취 물씬한 중정을 둘러싼 장인과 아티스트의 숭, 소품도 '영도스럽다'. 아재들이 마시던 술을 감각 넘치는 병과 레이블에 담아 파는 보틀숍, 아지매들이 바닷바람에 꾸덕하게 말린 건어물을 청년 사장들은 감각적인 디스플레이로 재포장해 근사한 특산물 쇼핑 아이템으로 내놓는다. 최고의 수건을 만드는 '송월타월', 아트포스터 전문 편집 매장, 가족 원단 전문 가게... 다채로운 이야기 가득한 로컬 브랜드를 그저 구경만 하기에는 어쩐지 아쉽다. 로컬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과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는 플라마켓도 주기적으로 펼쳐진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강연, 세미나도 연다. 주소 부산 영도구 태종로105번길 37-3 www.samjinium-archive.com

구충제를 꼭 챙겨주세요

산책은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활동 인데요, 외출이 잦은 계절에는 외부 기생충 대비가 철저해야 해요. 특히 진드기는 반려견이 수풀을 헤집으며 놀 때 달라 붙기 쉬워요. 질병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옮아요. 산책 후 빗질을 하며 목과 귀 주변, 꼬리와 다리 안쪽, 발가락 사이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반려견에게 붙은 진드기는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 가면 제일 좋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진드기를 잡아 수직으로 뽑아내듯이 제거합니다. 입부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소독약을 바른 뒤 탈지면으로 지혈합니다. 이후 발열, 다리를 절거나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이 없는지 반려견을 잘 살펴보세요.

평소 외부 기생충 약을 꼭 챙겨주세요. 최근 심장사상충을 포함 내외부 구충을 한 번에 해결하는 약을 먹이거나 등 뒤에 발라주는 약도 많이 사용합니다. 몸무게와 연령 그리고 건강 상태,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인지 등을 수의사와 상의해 약과 사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구충제와 더불어 옷을 입고 반려견 전용 스프레이나 목걸이 등 예방 제품을 추가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독이 되는 꽃과 식물이 있어요

산책하며 꽃이나 풀 냄새를 맡다가 반려견에게 해가 되는 식물을 먹게 되면 구토, 현기증, 설사, 발작, 쇼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요.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흔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는 기억해두면 좋아요.

진달래와 철쭉은 구토와 설사는 물론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이비는 독성이 강해 주의가 필요해요. 소철은 반려견은 물론 사람에게도 독성이 강합니다. 수선화는 조금만 먹어도 구토와 설사를, 많이 먹으면 경련, 저혈압,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며 톱질 역시 주의해야 해요. 카네이션과 국화는 피부염을, 사과나무와 살구나무는 호흡 곤란과 혈떡거림 등 쇼크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기정화 식물로 집에서 많이 키우는 홍콩야자, 몬스테라, 알로카시아 등도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됩니다. 집 안과 바깥 모두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반려견에게는 위험한 식물이 많아요. 흙이나 모래를 잘못 먹어도 장 폐색과 소화기관에 치명적이에요. 함부로 무언가를 입에 넣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살펴주세요.

참여를 기다립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표정, 자랑하고픈 인생 짤, 특별한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사연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언제까지? 2022년 3월 10일 ~ 2022년 5월 10일 **어떻게?** 이미지 파일(1MB, 300픽셀, 가로세로 9×13cm 이상 jpg, png 등)과 사연(분량과 형식은 자유입니다.) **어디로?** 이메일 happypobbypark@naver.com 문의 happypobbypark@naver.com(네이버 쪽지로도 가능합니다.)

베스트 사연 5명

지니펫 밸런스업 연어&흰살생선WITH홍삼 1kgx3개 정관장 6년근 홍삼성분이 함유돼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알레르기 최소화를 위해 곡물을 첨가하지 않은 그레인프리 사료. 신선한 복합단백질 원료(연어&흰살생선)를 사용한 균형잡힌 사료입니다.



선착순 50명

지니펫 밸런스업 사료 샘플 400g 연어&흰살생선WITH홍삼 50gx47개 오리&연어WITH홍삼 50gx4개



※증정 제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의 행복한 일상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봄맞이 산책을 즐기는 이번 호 다섯 가족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EVENT



첫눈에 마음을 빼앗긴 복주

인터넷에서 유기견 복주를 보자마자 '애는 내 아이다!'라는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복주를 집으로 데리고 왔죠. 처음엔 낯설어 하더니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해 이제는 간식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개인기도 불사하는 우리 집 재간둥이. 복주야 앞으로도 누나랑 행복하자♥

김규선 님(**bokzu@gmail.com)



공놀이에 진심인 깨발랄 복희

이제 두 살이 된 우리 복희는 공놀이를 정말 좋아해요. 복희에게 "산책 갈까?" 말하면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현관 앞에서 기다립니다. 공놀이에 몰입해 신나게 뛰어다니다가도 인기척이 들리면 급 점잖은 체를 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복희야 지금처럼 계속 발랄하게 지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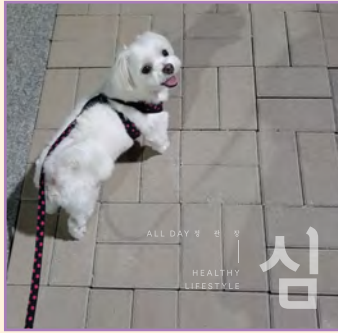
염주연 님(sh***_bokhui@gmail.com)



언제나 아이 같은 정남이

2007년 꼬물이 강아지가 우리 가족이 됐어요. 언니가 모델 배정남을 좋아해 이름을 정남이라고 지었죠. 세월이 흘러 정남이가 벌써 열다섯 살이 됐네요. 노견이라 백내장이 생기고 흰 털도 나기 시작했지만 어리광도 점점 늘어가는 정남이. 제 눈에는 여전히 귀여운 아이랍니다.

이지은 님(jjieun****@gmail.com)



오디야, 엄마를 부탁해

엄마가 집에 혼자 계시는데 외로워
하셔서 키우게 된 오디. 저는 요즘
타지에 있어서 매일 보지 못하고
주말마다 올라와서 보는데요. 그때마다
산책을 시켜줍니다. 너무 엄마만
좋아해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저를 잊지
않고 잘 따라주는 것만으로 고맙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오디야.

강아성 님(**boom@naver.com)



태평야, 우리 집으로 가자~

어느 날 절에 방문했는데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가 저희 아빠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밀어내도 아빠 곁을
떠나지 않던 그 녀석이 지금은 우리 집
보물 1호가 됐답니다. 언제나
천하태평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의
기쁨이 돼주는 태평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줘야 해!

김기한 님(mult***gks@naver.com)

THANKS

또 한번 감사드려요! 이벤트 선물을 받은 반려가족들이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맛있는 지니펫 사료를 받고 행복해지는 순간을 공개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니펫 사료를 엄청 잘 먹네요.
“콩순아, 밥 맛있게 먹고 건강하자!”

콩순이(2021년 가을호)



딩딩이가 입맛이 까다로운 녀석인데 지니펫
사료는 냄새만 맡아도 달려드네요. 감사해요!

딩딩이(2021년 겨울호)



뚜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지니펫 사료.
사진 찍는 지금도 먹고 싶다고 안달이네요.

뚜뚜(2021년 겨울호)

KGC인삼공사와
함께한 행복,
일상의 순간을 모았다.

HEART to ♥ HEART



hunsoo07022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 🔍 📍

hunsoo07022 큰아들이 엄마 기운 내라고 선 물해준 홍삼진고. 잘 키운 아들 덕에 힘이 난다!
#홍삼진고스틱 #아들고마워 #잘키운아들

iihida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 🔍 📍

iihida 아주 멋진 패키지 디자인의 홍삼 제품.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열심히 먹어야지!
#활기력 #에너지박스 #홍삼챙길나이 #멋진디자인 #나만먹자

KGC



'을 달아주세요'에 소개된 분들에게는 정관장 레네세 홍삼캔디 후(160g 1만4천원)를 3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reviews_amy

ALL DAY 정관장
HEALTHY LIFESTYLE
심

♥️ 🔍 📍

reviews_amy 남편을 위해 구매한 천녹정. 원래 홍삼정 먹다가 바꿔봤는데 남편 반응도 좋다.
#천녹정 #녹용 #맛좋은녹용 #남편선물 #술직후기

KGC NEWS

KGC인삼공사, 국가별 베스트셀러 담은 '홍삼 세계 지도' 공개

'K-푸드의 원조' 홍삼이 새해 명절을 보내는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인 인기 선물로 자리매김하는 등 해외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K-드라마 영향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며 젊은 세대 유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제품 다양화와 함께 이커머스 등으로 판매 채널을 다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 해외 시장 매출을 기준으로 국가별 베스트셀러를 선정한 '홍삼 세계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제품 '에브리타임'이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6개 지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한 것이 가장 주목할 점입니다. 해외 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뿌리삼'이 판매 1위 제품이며, 아시아 제외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홍삼정'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외에 호주와 러시아에서는 '홍삼원'이 가장 많이 팔리며, 중동 지역에서는 '홍삼정'이 인기입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 정관장 화애락 이너제틱 전속 모델 발탁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화애락 이너제틱 모델로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Rozy'를 선정했습니다. 로지는 가상의 22세 여성으로 자신감 넘치고 통통 튀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현재 1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애락 이너제틱의 당당하고 생기 가득한 브랜드 콘셉트와 부합하는 로지는 인스타그램 시즌별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방면 채널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애락 이너제틱 바다와 함께 캠핑 다이닝을 즐기는 모습을 선보였고, 연말에는 화애락 이너제틱 스킨을 들고 연말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KGC인삼공사 김형숙 브랜드실장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해 화애락 이너제틱 모델로 로지를 발탁했다"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폭넓은 활동 영역을 보여주는 로지와 함께 보다 더 많은 고객과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GC인삼공사, 설 명절맞이 ‘효 배달’ 캠페인 성료



생생한 ‘효 배달’ 캠페인 현장
www.youtube.com

KGC인삼공사가 설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효(孝) 배달’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효 배달 시즌 2’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에게 온열 찜질기와 설 음식, 그리고 정관장 제품을 더한 3중 선물 패키지를 전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KGC인삼공사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진행했으며, 정관장 봉사단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 구매 비용은 KGC인삼공사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은 정관장 펀드와 네이버 해피빈의 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효 배달 시즌 1’에서도 해당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KGC인삼공사 김호겸 대외협력실장은 “감염병의 위협 속에 더욱 소외감을 느끼셨을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건강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묵묵히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인비, 새로운 안티에이징 솔루션 ‘듀얼 안티에이징’ 선보여



동인비 ‘듀얼 안티에이징’ 광고
www.youtube.com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동인비가 현재의 노화는 물론 미래의 노화가 지 케어하는 새로운 피부 안티에이징 솔루션 ‘듀얼 안티에이징 Dual anti-aging’을 선보입니다. 동인비는 브랜드의 3대 시그너처 원료 (홍삼오일, 홍삼응축수, 홍삼진액)를 바탕으로 홍삼 테크놀로지, ‘레드진세닉 Redginsenic™’을 탄생시켰으며 피부에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부터 후까지 종합 케어하는 듀얼 안티에이징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듀얼 안티에이징은 ‘프리 안티에이징’과 ‘인텐시브 안티에이징’으로 단계를 이원화해 피부 상태와 고민에 따라 맞춤 선택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이 특징입니다. KGC인삼공사 이정훈 화장품사업실장은 “듀얼 안티에이징이라는 독보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은 30여 년간 홍삼 피부 과학을 연구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동인비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빛나는 ‘밀도 피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피부 노화에 대한 총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로봇 있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한곳을 향합니다. 어린 아이 키만한 로봇이 주방과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서빙하고 빈 그릇을 수거하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서빙 로봇 중에는 배달의민족 ‘딜리’가 유명하죠. 현재 전국 500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로봇 한대가 하루 8시간씩 한달 동안 48km를 움직인다고 하네요. 호텔에서라도 열일중이에요. 투숙객을 룸으로 안내하고 수건이나 생수 등도 가져다줍니다. 임무를 마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의 호캉스에 더할 나위 없죠.

사람을 대신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머신, 로봇은 빠르게 일상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설거지와 세탁물 분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집안일을 돕는 가사 로봇, 즉석에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로봇, 근사한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 로봇도 있죠. 지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성화를 봉송하고, 쿠킹 로봇이 각국 선수들의 음식을 조리했어요. 청소와 방역 로봇도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AI, 딥러닝 기술은 감정을 교류하는 소셜 로봇으로 진화합니다. 사람과 언어, 몸짓으로 대화하며 정서적인 소통을 나누는데요, 반려동물과 다름없이 주인을 따르며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는 펫봇을 예로 들 수 있죠.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고 기상이나 식사, 약 복용 시간 등을 챙겨주기도 해요. 실제로 소셜 로봇 사용자들은 우울 지수와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환자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이런 개인 및 가정용 서비스 로봇의 시장 규모는 2019년 이후 해마다 23%씩 쑥쑥 커가고 있어요. 아마존, 테슬라,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현대, 삼성, LG, 우리나라 기업도 로봇 연구와 투자가 뜨거워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자사의 가정용 서비스 로봇 ‘아스트로Astro’를 출시하며 “5~10년 안에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아스트로를 갖게 될 것이다”라며 호언장담했고 큰소리라면 뒤지지 않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봇을 선보이겠다고 했어요. BTS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은 사족보행 로봇 스폫은 온라인숍에서 9천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위드 로봇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청소이모님과 식세기이모님, 다음에 누가 오면 좋을까요?

KGC인삼공사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소식과 매거진 <심>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미디어 콘텐츠를 모아 소개합니다.

official link
www.youtube.com



생생한 '호 배달' 캠페인 현장

설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한 '호 배달' 캠페인. 정관장 봉사단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설 선물을 전했습니다. 훈훈함이 넘쳐났던 그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official link
www.youtube.com



동인비 '듀얼 안티에이징' 광고

동인비가 새로운 피부 안티에이징 솔루션 '듀얼 안티에이징Dual anti-aging'을 선보입니다. 현재의 노화는 물론 미래의 노화를 케어하는 정관장 홍삼만의 테크놀로지 '레드진세닉Redginsenic™'을 만나보세요.

official link
www.youtube.com



도예가 신상호의 작품 감상하기

항상 혁신을 꾀하며 전혀 새로운 품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도예계의 이단아' 신상호 작가. 생활 도자에서부터 평면, 조형, 건축 등으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합니다.

official link
www.youtube.com



성우 이용신의 <달빛천사> 무대

애니메이션 <달빛천사> 주인공 루나, 풀문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이용신 성우. 15년 만에 대중 앞에서 애니메이션 수록곡을 불러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는데요. 그 무대를 함께 감상해보시죠.

official link
www.youtube.com



상상마당 부산 스테이 둘러보기

부산의 대표 복합 문화 공간 'KT&G 상상마당 부산'. 이곳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네가지 테마룸으로 구성된 상상마당 부산 스테이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official link
www.kgc.co.kr



매거진 <심> e-book 보기

KGC인삼공사 매거진 <심>을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나 성향, 말투 등 사소한 습관까지 닮은 구석이 튀어나오는 형제자매.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선은 각도를 달리하며 점점 더 멀어지기도 하고 평행선으로 나란히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질곡이 있고 이 선들은 어디선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는 그 지점의 좌표는 ‘가족’입니다. 같은 추억, 다른 감정, 때로 안타깝고 서운해도 모르는 척할 수만은 없는 우리 형제자매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Brothers and sisters have many things in common such as appearance, tendency, way of speaking. But also have so many things in difference. At some point, they are getting awkward by reducing communication. Even though they quarrel each other with such a small things, always stay in close all the time. Let's look into this weird relationship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